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영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R. Schumann의 가곡집 《빌헬름
마이스터, Op. 98a》 분석 연구

-4개의 미농의 노래를 중심으로-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이 하 나

R. Schumann의 가곡집 《빌헬름
마이스터, Op. 98a》 분석 연구
-4개의 미농의 노래를 중심으로-

김 미 영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0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이 하 나

인 준 서

이하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05월

심사위원장 지형주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김미영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이혜진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로베르트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의 가곡집 《빌헬름 마이스터, op.98a》 중 <4개의 미농의 노래>를 위한 연구이다. 슈만은 많은 작곡가들의 시를 가지고 예술가곡을 작곡하였는데, 그 중 1849년에 피테의 작품 『빌헬름 마이스터 수업시대』(Wilhelm Meisters Lehrjahre)에 나오는 ‘미농’이란 인물을 가지고 곡을 지었다.

이 시기에는 드레스덴 혁명이 일어난 시기로서, 매우 혼잡하고 불안한 사회였다. 슈만은 이러한 속에서 순수한 세계를 동경하였으며 특히, 이 시기에 어린이 모티브로 된 곡을 지었는데, 맑고 순수한 어린 미농을 통해 슈만 자신이 동경하는 세상을 나타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슈만의 드레스덴 시기 이후의 작품세계에 대해 고찰하고, 이 작품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작품 배경 및 줄거리를 알아보고 그 안에 주인공 ‘미농’이란 인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난 후 슈만의 작품 가곡집 《빌헬름 마이스터》가 음악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전체적인 내용과 구성을 살펴보고, 4개의 미농의 노래를 분석,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슈만은 신 독일 악파의 영향을 많이 받아 낭만 후기의 양식과 언어로 표현되어질 수 없는 가사 내용을 풍부한 화성과 새로운 기법으로 피아노 성부를 통해 미농을 표현했다. 또한, 불협화음, 잦은 전조, 자유로운 화성 변화, 감7화음, 비화성음인 이탈음, 오페라 아리아적 요소, 프렌치화음, 나폴리6화음, 피카르디 종지, 서정적인 선율보다는 드라마틱한 선율 등을 사용하고 슈만의 특징 중 하나인 긴 후주 등으로 미농의 어둡고 복잡한 마음과 심리를 나타냈다. 그리고 가사에 따라 음악을 밀접하게 작곡하였으며 이러한 음악적 기법 등을 통해 미농을 세세하게 음악적으로 표현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1. 서론.....	1
II. 드레스덴 시기 이후 슈만의 작품세계에 대한 고찰.....	4
III. 괴테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 수업시대』에 대한 개괄	
1. 작품 배경 및 줄거리.....	10
2. 미농이란 인물의 특성과 예술작품에서의 반향.....	14
IV. 슈만의 가곡집 《빌헬름 마이스터》의 구성과 4곡의 미농의 노래 분석	
1. 특성과 구성.....	18
2. 4곡의 미농의 노래 및 분석.....	22
V. 결론.....	59
참 고 문 헌.....	62
ABSTRACT.....	66

표 목 차

<표1> 슈만의 가곡집 《빌헬름 마이스터》에 있는 노래의 구성	19
<표2> 제1곡 구조	25
<표3> 제1곡 각운	26
<표4> 괴테와 슈만의 후렴구 시 비교	30
<표5> 괴테의 원작 시와 슈만이 수정한 시	34
<표6> 제3곡 구조	34
<표7> 제3곡 각운	35
<표8> 제5곡 구조	41
<표9> 제5곡 각운	42
<표10> 제9곡 구조	52
<표11> 제9곡 각운	53
<표12> 4곡의 노래 시적 의미와 음악적 기법	58

악보 목차

<악보1> 제1곡 <그 나라를 아시나요> 마디1-5.....	27
<악보2> 제1곡 <그 나라를 아시나요> 마디 6-27.....	29
<악보3> 제1곡 <그 나라를 아시나요> 마디 52-56.....	30
<악보4> 제1곡 <그 나라를 아시나요> 마디 80-81.....	31
<악보5> 제3곡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마디1-17.....	37
<악보6> 제3곡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마디18-21.....	38
<악보7> 제3곡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마디37-41.....	38
<악보8> 제5곡 <말하라 하지말고, 침묵하게 해줘요> 마디1-15.....	44
<악보9> 제5곡 <말하라 하지말고, 침묵하게 해줘요> 마디16-36.....	46
<악보10> 제5곡 <말하라 하지말고, 침묵하게 해줘요> 마디37-61.....	48
<악보11> 제9곡 <나를 이대로 있게 해주오> 마디1-35.....	55
<악보12> 제9곡 <나를 이대로 있게 해주오> 마디47-54.....	57

I. 서론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856)은 낭만주의 예술가곡의 대표적인 작곡가이다. 그는 처음에는 피아노와 같은 기악곡을 많이 작곡하였으나, 1840년 ‘가곡의 해’라 불리며 100여 편이 넘는 많은 가곡을 작곡하였다. 슈만의 초기 가곡은 주로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가곡적 선율 양식으로 작곡되었으며, 피아노 반주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또한 시와 음악의 결합을 매우 중요시하였으며, 아이헨도르프(Joseph Freiherr von Eichendorff, 1788-1857), 하이네(Heinrich Heine, 1797-1856), 뤼케르트(Ruckert, Friedrich, 1788-1866), 샤미소(Adelbert von Chamisso, 1781-1838)등 많은 문학 작가의 시의 곡을 붙였다.

그러나 1849년 드레스덴 혁명 이후 슈만의 후기 가곡은 드라마틱한 스타일로 변화되었다. 대표적인 곡이 괴테의 작품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Wilhelm Meisters Lehrjahre*)에 나오는 시에 곡을 붙인 가곡집 《빌헬름 마이스터》(Wilhelm meister op.98a)이다. 8곡 중에 미농이란 인물을 가지고 4곡을 지었다. ‘미농’이란 괴테의 시적 인물은 슈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불러 일으켰다.

본 연구자는 슈만이 미농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미농을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연구하기 전에 국내 선행논문을 학술정보연구원(riss)에서 조사했으며, ‘미농’을 주제로 한 논문 약 55개 정도를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들로는 《빌헬름 마이스터 가곡집》전곡 연구¹⁾, 슈만/ 볼프/ 슈베르트의 비교분석²⁾, 볼프의 미농의 노래³⁾, 슈베

1) 손유진, “슈만의 가곡에 나타난 낭만주의 모티브 연구 : 『빌헬름 마이스터 가곡집』(Lieder und Gesang aus Wilhelm Meister, Op. 98a)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채희승, “Robert Schumann의 연가곡 <Lieder und Gesänge aus 'Wilhelm Meister'>Op.98a의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2) 이은선, “『미농의 노래』 연구 : 슈베르트 슈만 볼프의 가곡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르트의 미농의 노래⁴⁾, 일반적인 분석 연구가 있으며, 본 연구자와 같이 <4개

석사학위논문, 2002); 강여정, “괴테의 서정시 『미농의 노래』에 관한 연구 : 슈베르트, 슈만, 볼프의 가곡을 비교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성이진, “슈베르트와 슈만의 「미농의 노래」 비교 연구 및 연주법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민경, “슈베르트, 슈만, 볼프의 가곡 「미농의 노래」 비교분석연구 : 'Heiß mich nicht reden'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박인선, “19세기 예술가곡의 시와 음악적 표현 연구 : F. Schubert, R. Schumann, H. Wolf의 <미농의 노래>중 「Kennst du das Land, wo die Zitronen bluhn」을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박선미, “J. W. 괴테의 『미농의 노래』에 대한 R. 슈만과 H. 볼프의 가곡 비교 분석,”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조설영, “괴테 시에 의한 슈베르트, 슈만, 볼프의 <미농의 노래> 중 「Kennst du das Land...」 비교 연구 : 시와 음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송경하, “슈베르트, 슈만, 볼프가곡반주연구 : 괴테 '미농의 노래'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이루다, “괴테의 시 Kennst du das Land에 의한 가곡 연구 : F. Schubert, R. Schumann, H. Wolf 비교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박선애, “괴테 시 『Kennst du das Land』에 붙인 슈베르트, 슈만, 볼프의 가곡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장혜림, “괴테의 시 '그리움을 아는 자 만이'에 관한 슈베르트, 슈만, 볼프의 가곡 연구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김에스터, “괴테의 시 'Kennst du das Land'에 곡을 붙인 -슈베르트, 슈만, 볼프 가곡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곽은주, “괴테의 시 「Kennst du das Land」를 가사로 하는 19세기 독일 예술가곡의 분석 연구 : 슈베르트, 슈만, 볼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3) 강나영, “볼프의 가곡 '미농의 노래' 분석 연구 : 괴테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중,”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목문경, “H. Wolf의 「미농의 노래」 연구 분석,”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서나은, “Hugo Wolf의 가곡 「미농의 노래」에 관한 연구 : <괴테의 시에 의한>,”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혜정, “볼프 (Hugo Wolf) 가곡에 대한 연구 : 괴테(J.W. Goethe)의 시 "미농(Mignon)"을 중심으로 ,”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김예령, “Hugo Wolf의 미농(Mignon)에 관한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한나, “Hugo Wolf의 '미농의 노래'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지영, “Hugo Wolf의 「미농의 노래 I. II. III」의 분석·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윤상희, “H.Wolf의 Mignon I, II, III과 Kennst du das Land에 나타난 시와 음악의 관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보경, “Hugo Wolf의 'Goethe 가곡집'에 관한 연구 : 소설 'Wilhelm Meister'를 중심으로 한 4곡을 가지고,”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4) 표지은, “슈베르트 「미농의 노래」의 객관적 연주를 위한 분석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김진아, “F. Schubert 미농의 노래에 대한 연구 : 다른 작곡가들의 미농의 노래를 통한 이해와 비교 및 분석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박현정, “슈베르트(Franz Schubert)가곡에 대한 연구 : 괴테(J.W. Goethe)의 시 "미농(Mignon)"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은하, “슈베르트 가곡-괴테의 시 『미농의 노래』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박은진, “괴테의 시에 의한 F. 슈베르트의 4개의 「미농의 노래」 분석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신승지, “F. Schubert의 「미농의 노래」 D-321, D-877 분석 고찰,” (강릉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의 미농의 노래>를 주제로 한 국내 선행 논문⁵⁾은 3개가 있다. 4개의 미농의 노래를 중심으로 연구한 윤영주는 일반적 곡 분석과 노래 파트를 중점적으로 연구했고, 오주현도 전반적인 곡 해석과 반주 파트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지만, 세밀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선행연구에서 잘 고찰되지 못한 ‘미농’이란 인물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괴테의 시적 인물인 미농을 자세히 고찰하고, 슈만이 미농을 어떻게 해석하여 음악적으로 표현하였는지 연구하여 연주와 해석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드레스덴 이후의 슈만의 작품세계에 대해서 고찰하고, 두 번째로는 괴테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 수업시대』에 배경과 내용을 알아본다. 세 번째로 미농의 인물적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네 번째로는 가곡집 《빌헬름 마이스터》의 전체 구성과 4개의 미농의 노래를 이해,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슈만의 가곡을 연주자들이 보다 깊이 있고, 심층적인 연주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5) 윤영주, “R. Schumann의 '4개의 미농의 노래'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민진선, “Robert Schumann 예술가곡의 음악적 표현 연구 : 『미농의 노래』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오주현, “Goethe의 「Wilhelm Meister Lehrjahre」와 Schumann의 「4 Mignon's Songs from Goethe's Wilhelm Meister」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II. 드레스덴 시기 이후 슈만의 작품세계에 대한 고찰

19세기 낭만주의의 음악관은 주관적 감정의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또한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미학’을 우선으로 했으며 일상적 삶이나 이성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음악을 통해 ‘동경과 이상세계’를 경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⁶⁾ 예술가들은 이러한 세계를 표현하는데 있어 가사가 없는 기악 음악을 중요시했다.⁷⁾ 기악 음악의 중요성은 예술가곡 장르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예술가곡이란 “시와 노래, 그리고 피아노가 하나로 융합되어 가사와 음악의 내용을 충분히 표현한 가곡”이라고 말할 수 있다.⁸⁾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856)은 이러한 낭만주의 예술가곡의 대표적인 작곡가이다. 그는 음악사에서 낭만주의 전성기의 가장 뛰어난 가곡 작곡가이기도 하다. 그의 예술은 “영혼의 음악, 끝없이 솟구치는 판타지와 내면의 생각, 감정이 풍부한 인식에서 나오는 음악”이라고 평가받는다.⁹⁾ 슈만의 음악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음악가는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이었다. 그리고 시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의 영향을 받아 예술가곡을 한 층 더 발전시켰으며 기본 형식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고 새로운 음악 장르의 가곡을 작곡하였다. 슈만은 특히 시에 대한 이해와 언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였다. 또한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의 작품들을 연구해서 바흐의 대위법을 자신의 작품에 적용했다. 화성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화성을 많이 사용하고, 부점음표나 당김음을 자주 사용하였다. 특히 낭만주의 음악가 중 리듬에 대한 감각은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받는다.

6)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두길서양음악사 2』 (경기: ㈜ 나남, 2016), 322.

7)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위의 책.

8) 김지혜, “R. 슈만의 연가곡 <리더크라이스>(Liederkreis, Op.24)에 대한 연구 : 시와 음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6.

9) 김희열, “독일 가곡과 슈만의 문학적 음악 세계,” 『독어독문학』 (2009), 16에서 재인용.

슈만은 초기에 피아노와 같은 순수 기악 음악 작곡가로서 활동했고 “인간의 언어와 결부된 성악음악” 에는 회의적이었다.¹⁰⁾ 그러나 클라라(Clara Josephine Schumann, 1819-1896)와 결혼을 한 해이자, '가곡의 해' 라 불려지는 1840년에 무려 138곡의 가곡을 작곡하였다. 가곡 창작의 시작을 알린 이후, 그는 클라라에게 “성악곡을 쓴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그건 오랫동안 나에게 결여된 일이기도 했소” 라고 고백하기도 했다.¹¹⁾ 슈만은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시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시와 음악을 결합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작곡할 가곡들을 위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시를 골랐다.¹²⁾ 그리고 시인이 곧 작곡가이며, 반대로 작곡가가 곧 시인이라고 생각했으며, 아이헨도르프(Joseph Freiherr von Eichendorff, 1788-1857), 하이네(Heinrich Heine, 1797-1856), 뤼케르트(Ruckert, Friedrich 1788-1866), 샴미소(Adelbert von Chamisso, 1781-1838) 등 많은 문학 작가의 시를 가지고 작곡하였다.¹³⁾ 또한 낭만주의의 문학 작가 장 파울(Jean Paul, 1763-1825)과 E.T.A호프만(Ernst Theodor Amadeus Hoffmann, 1776-1822)등에게도 영향을 받아 음악과 시의 밀접함을 보여주었다.¹⁴⁾ 슈만은 예술의 본질이 “시적인 것(Poesie)”이라고 하였으며, ‘시적인 것’은 모든 예술이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⁵⁾ 그의 ‘시적인 세계’는 “산문적인 일상과는 대립되는 높은 차원의 세계로서 복잡함과 현학주의가 배제된, 단순하고 감정의 명

10) 김미영, “새로운 시적 시대의 추구: 슈만의 음악관,” 『음악이론연구』 11(2006), 14.

11) 김희열, “독일 가곡과 슈만의 문학적 음악세계”, 16에서 재인용.

12) Carol Kimball(채은희 역), 『Song 하권』 (형설, 2003), 92.

13) 《리더크라이스 제1집 Liderkreis op.24》(하이네, 1840), 《미르테의 꽃 Myrten op.25》(뤼케르트, 하이네, 피테, 1840), 《리더크라이스 제2집 op.39》(아이헨도르프, 1840), 《여자의 사랑과 생애 Frauenliebe und Leben op.42》(샴미소, 1840), 《로망스와 발라드 제1집 Romanze und Balladen Heft op.45》(아이헨도르프, 하이네, 1840), 《시인의 사랑 Dichterliebe op.48》(하이네, 1840), 《로망스와 발라드 제 2집 op.49》(하이네, 1840), 《로망스와 발라드 제 3집 op.53》(하이네, 1840), 《로망스와 발라드 제4집 op.64》(뫼리케, 하이네, 1841-47).

14) 홍정수 외 2명, 『두길 서양음악사2』, 322.

15) 위의 책, 322.

확함을 통해 드러난다고 보았다.”¹⁶⁾ 이러한 미학관은 그의 예술가곡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가곡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피아노곡을 작곡했던 슈만은 가곡에서 피아노 파트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또한 전주와 후주는 길며, 이것은 전체 작품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연가곡¹⁷⁾을 많이 작곡하였다.

슈만의 초기 가곡이 주로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서정 가곡적 선율 양식으로 작곡되었다면, 드레스덴 이후 가곡은 더욱 드라마틱한 스타일로 변화되었다.¹⁸⁾ 드레스덴 시기를 살펴보면, 1844년 슈만은 병을 이기기 위해 원래 살던 라이프치히에서 드레스덴으로 거주를 옮겼다. 드레스덴에 거주하던 이 시기(1844-1850)에 그는 주로 창작에만 몰두하였고, 이 시기의 창작활동은 “제2의 전성기”라고 불릴 만큼 경지에 이르렀다. 그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상태였지만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바흐의 푸가 대위법에 대한 연구¹⁹⁾를 진행하였고, 점차 건강이 회복되었다. 1840년대 후반 그는 다시 문학작품에 몰두하여 “장 파울, 호프만,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 쉴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 1759-1805), 하이네, 아이헨도르프” 등의 텍스트를 가사로 가곡²⁰⁾을 작곡하였다.²¹⁾ 1847-1852년까지는 그의 두 번째 창작 시기²²⁾이며 이 시기에 많은 합창곡²³⁾들이 발표

16) 김지혜, “R. 슈만의 연가곡 <리더크라이스>(Liederkreis, Op.24)에 대한 연구 : 시와 음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11.
 17) 《리더크라이스 제1집 Liederkreis op.24》(하이네, 1840), 《미르테의 꽃 Myrten op.25》(뤼케르트, 하이네, 괴테, 1840), 《리더크라이스 제2집 op.39》(아이헨도르프, 1840), 《여자의 사랑과 생애 Frauenliebe und Leben op.42》(샤미소, 1840).
 18) 박은정, “하이퍼미터에 근거한 슈만의 가곡 Op. 90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29.
 19) 《페달 피아노를 위한 연습곡》(Studien für den Pedal-Flügel, Op. 56), 《BACH에 의한 6개의 푸가, Op. 60》, 《4개의 푸가》(Vier Fugen, Op. 72)등을 작곡하였다.
 20) 《가곡집 제3집 op.77》(아이헨도르프, 1840-50), 《3개의 노래 3 Gesänge op.83》(뤼케르트, 아이헨도르프), 《장갑 der Handschuh op.87》(쉴러), 《어린이를 위한 노래의 앨범 Liederalbum für die Jugend op.79》(쉴러, 1849), 《“빌헬름 마이스터”에 의한 가곡집 Lieder und Gesänge aus “Wilhelm meister” op.98a》(괴테, 1849), 《6개의 노래 6 Lieder op.89》(쉴러, 1850), 《가곡집 제 4집 op.96》(괴테, 1850), 《5개의 노래 5 Lieder und Gesänge op.127》(하이네, 1840-50).
 21) 김희열, “독일 가곡과 슈만의 문학적 음악세계”, 18.
 22) 김희열, 위의 글.

되었고, 혼성합창곡, 여성 합창곡, 새로운 종류의 ‘코랄 발라드’ 등을 작곡했다. 또한 피테, 쉴러, 헵벨(Friedrich Hebbel, 1813-1863) 등의 작품을 오페라와 오라토리아와 같은 악극²⁴⁾으로 만들었다.²⁵⁾ 특히 드레스덴의 거주하던 1849년은 ‘다작의 해’ 라고도 불리며,²⁶⁾ 이 해의 슈만은 기악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²⁷⁾을 작곡하였다. 그러던 중 1849년 드레스덴 혁명²⁸⁾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드레스덴 근처 작은 마을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그곳에서 슈만은 가곡집인 《어린이를 위한 노래 앨범》(*Liederalbum für die Jugend*, Op. 79)을 완성하였고, 1850년 《레나우 6개의 시에 의한 가곡과 레퀴엠》(*6 Gedichte von Lenau und Requiem*, Op. 90)을 작곡하였다.²⁹⁾ 이 곡들을 마지막으로 드레스덴에서의 생활을 마무리 지었다.

1849년의 이후에 후기 가곡을 보면 초기 가곡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³⁰⁾

-
- 23) 《3개의 노래 3 Mannerchor op.67》(남성4부합창을위한, 1849), 《로망스집 제1집 Romanzen op.69》(여성4부합창을위한, 1849), 《로망스와 발라드 제 2집 op.75》(혼성4부합창을위한, 1849), 《로망스 제2집 op.91》(여성4부합창을위한, 1849), 《모테트 “슬픔의 골짜기에 있더라도 절망하지 말라 Verzweifle nicht im Schmerzenstal” op.93》(남성2중합창을 위한, 1849/관현악판 편곡1852), 《사냥의 노래 Jagdlieder op.137》(남성4부합창을위한, 1849), 《4개의 혼성2중합창곡 op.141》(1849), 《로망스와 발라드 제3집, 제4집 op.145, 146》(1849-51).
- 24) 《게노파파 Genoveva op.81》오페라(1847-49), 《장미의 순례 Der Rose Pilgerfahrt op.112》오라토리오(헵벨, 1851), 《만프레드 Manfred op.115》연극의 부수음악, 합창과 오케스트라(바이런, 1848-49), 《“파우스트”에서의 정경 Szenen aus Gothes Faust》연극의 부수음악, 합창과 오케스트라(피테, 1844-53).
- 25) 김희열, “독일 가곡과 슈만의 문학적 음악세계”, 18.
- 26) 신지예, “슈만의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3개의 로망스> (Drei Romanzen für Oboe und Klavier, Op. 94)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1.
- 27) 피아노와 솔로 악기의 이중주곡인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소곡집》(*Fantasiestücke für Klavier und Klarinette*, Op.73), 《피아노와 호른을 위한 아다지오와 알레그로》(*Adagio und Allegro für Klavier und Horn*, Op. 70), 《4대의 호른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콘트라슈트케》 등이 있다. 후기에 작곡된 피아노 작품들에서는 초기의 피아노곡들과는 다른 양식이 보인다. 피아노 작품 《숲의 정경》에서는 새로운 양식인 ‘아카펠라 양식’을 볼 수 있다.
- 28) 1848년 2월 프랑스를 시작으로, 3월에는 오스트리아 빈과 프로이센에서 혁명이 연이어 일어났다. 프로이센 혁명군들은 출판·결사의 자유, 국민 무장, 배심제관제, 독일통일의회 성립 등 자유주의적인 ‘3월 요구안’을 제출하였으며 이 결과 독일 통일에 대한 담론과 논의가 가시화되었다. 드레스덴 혁명은 3월 혁명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것이다.
- 29) 신지예, “슈만의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3개의 로망스> (Drei Romanzen für Oboe und Klavier, Op. 94)에 대한 연구,” 12.

즉 “극적이고 낭송적 작곡 양식”이며 바그너와 같은 신독일 악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³¹⁾ 신 독일 악파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사의 낭송적 방식”³²⁾과 언어로 표현되어질 수 없는 가사 내용을 풍부한 화성과 새로운 기법으로 피아노 성부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다.³³⁾ 이러한 작곡 방식으로 신독일 악파는 시와 음악의 밀접함을 좀 더 추구하였다.³⁴⁾

드레스덴 혁명 이후에 슈만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어린이 모티브를 가지고 작곡한 곡들이 많다는 것이다. 《어린이를 위한 노래의 앨범》(Liederalbum für die Jugend op.79, 1849), 《작은 어린이와 큰 어린이를 위한 12곡의 연탄 소품》(Zwölf vierhandige Clavierstücke für Kleine und gross Kinder op.85, 1849), 《어린이의 무도회》(Kinderball op.130, 1853), 《어린이를 위한 소나타》(Clavier Sonaten für die Jugend op.118, 1853) 등이 있다.

슈만이 이렇게 어린이를 위한 모티브를 많이 사용한 이유를 알기 위해 문학적으로 ‘어린이 모티브’를 살펴보았다. 19세기에 문학 세계에서 어린이 모티브는 “도달할 수 없는 세계, ‘영원한 청춘’의 세계”로 평가했다.³⁵⁾ 또한 “어린이 시기에 대한 동경은 곧 황금시대, 시적 세계, 무한의 세계, 신화의 세계, 꿈의 세계, 유토피아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동일시되었다.³⁶⁾ 그래서 “이상의 세계로 여겨진 어린이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인 어른의 세계와 대비되었으며, 되돌아 갈 수 없는 동경의 세계로 어린이의 세계를 묘사” 하였

30) 김희열, “독일 가곡과 슈만의 문학적 음악세계”, 18.

31) 김미영, “전통의 고수와 새로운 창조적 요구의 통합양식 - 브람스의 리트작곡을 중심으로,” 『연세음악연구』 5 (1997), 189.

32) 가사를 작곡하는 낭송 방식이란 언어의 뉘앙스나 억양을 웅변적으로 표현력있게 낭송하며 가사를 읊는 것으로, “낱말-음적인 선율” 혹은 “언어선율”이라고 한다.

33) 김미영, “전통의 고수와 새로운 창조적 요구의 통합양식 - 브람스의 리트작곡을 중심으로,” , 190.

34) 김미영, 위의 글, 191.

35) 우혜연, “20세기 후반 피아노 음악에서 나타난 “유년”(Kindheit) 모티브에 대한 미학적 논의 - 헬무트 락헨만의 《어린이 유희》를 중심으로, “ 『서양음악학』 31(2013), 2에서 재인용.

36) 우혜연, 위의 글, 3.

다.³⁷⁾ 이러한 낭만주의 문학은 낭만주의 음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음악은 낭만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 무한한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이었으며, 음악 예술에서 숭고함과 순수함 등은 어린이를 통해 구체화 되었다.³⁸⁾ 이러한 ‘어린이 모티브’는 이 시대에 음악, 특히 피아노 작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³⁹⁾ 그 대표적인 작품이 슈만의 《어린이 정경》(Kinderzenen op.15, 1838)이다. 《어린이 정경》에 나타난 어린이 모티브는 “낭만주의 시대에 미학적 패러다임을 읽어낼 수 있는 매개체이며 슈만과 클라라의 유년 시절과 그들의 미래에 대한 동경을 담고 있는 투영체”이다.⁴⁰⁾ 또한 슈만의 후기 가곡 중 《어린이를 위한 노래의 앨범》은 쉴러의 시의 곡을 붙인 것이며, 이 곡의 마지막 곡은 「미농 (Mignon)」이다. 이렇듯 슈만의 어린이 모티브를 가진 곡들은 진짜 어린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혁명이라는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어린이 모티브를 통해 순수한 세계를 동경하는 슈만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드레스덴 시기 이후의 슈만의 후기작품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작품이 피테의 『빌헬름 마이스터 수업시대』이며, 특히 피테의 『빌헬름 마이스터 수업시대』에 나오는 ‘미농의 노래’는 어린이 모티브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노래들이다. 다음에서는 피테의 작품을 알아보고, 슈만이 가곡에서 어떻게 미농을 표현했는지 자세히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37) 우혜언, 위의 글, 4.

38) 우혜언, “피아노 음악에서 나타난 유년(Childhood) 모티브 연구; 슈만의 《어린이 정경》을 중심으로,” 『음악이론연구』 17 (2011), 1.

39) 우혜언, 위의 글.

40) 우혜언, 위의 글.

III. 괴테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 수업시대』에 대한 개괄

1. 작품 배경 및 줄거리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의 장편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Wilhelm Meisters Lehrjahre)는 1777년 쓰여졌다. 원래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연극적 사명』(Wilhelm Meisters theatralische Sendung)의 미완성 연극소설이었으나 이탈리아 여행 후 친구 쉴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 1759-1805)의 독려로 1796년 주인공의 자기 형성과정을 묘사한 교양소설로 완성 시켰다. ‘교양소설’이란 독일에서 크게 발달한 장르로서, “주인공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안에서 갖가지 체험을 쌓으면서 성장, 발전하여, 인간으로서의 자기 형성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그리는 소설이다.”⁴¹⁾ 괴테에게 이탈리아 여행은 질풍노도의 어두운 시대에서 벗어나 고전주의로 확립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괴테가 『연극적 사명』(theatralische Sendung)을 쓴 시기는 질풍노도(Sturm und Drang)의 시대⁴²⁾였고, 『수업시대』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고 완성한 것은 고전주의 시대이다. 즉 이 작품은 상반되는 특징을 가진 질풍노도 시대와 고전주의 시대의 두 시대에 걸쳐 20년 동안 쓰였다. 총 8권으로 이루어졌으며, “18세기 독일 시민 사회를 거치는 동안 작가 괴테의 정신적 변화뿐만 아니라 시대적 경향의 흐름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⁴³⁾

41) 김미애, 『독일가곡의 이해』(서울: 삼호출판사, 1998), 32.

42) Sturm und Drang 또는 질풍노도는 18세기 후반에 독일에서 일어난 문학 운동이다.

1765년경부터 1785년경까지 약 20년 동안이 이 시기에 해당된다. 계몽주의에서 고전주의·낭만주의시대에 걸쳐 과도적인 역할을 다한 문학·연극 운동이다.

이 시기의 괴테의 주된 관심은 연극 그 자체보다 ‘인간성(Humanity)’ 즉 ‘교양’ 혹은 ‘인간 형성’ 이었다. 괴테는 소설에서 주인공 빌헬름을 여러 특징적인 인물들과 만나게 하는데, 각 인물들의 성격 묘사와 더불어 빌헬름이 그들과 교류하며 성장 되고 이루어지는 성격 형성의 과정을 보여준다. 소설의 줄거리를 각 권별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제1권

빌헬름은 어린 시절에 인형극을 관람하고 난 후로 연극에 빠지게 된다. 국립극장에서 일을 하던 중 빌헬름은 연극배우 마리안네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마리안네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한 그는 결국 그녀와 헤어지고 연극의 꿈을 접게 된다.

제2권

이별의 아픔을 접고 여행을 떠난 빌헬름은 우연히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외모의 미농(Mignon)이라는 소녀를 보게 되고, 학대 받고 있는 그녀를 직접 돈을 지불 하고 구출하여 친자식처럼 키우게 된다. 미농은 그를 보호자, 아버지처럼 충실히 따른다. 빌헬름은 여기서 하프 타는 노인과 연극단을 조직하고 있던 멜리나를 만나 함께 여행길에 오른다.

제3권

빌헬름이 멜리나와 함께 연극을 제작하고 있는 중에 한 백작이 이 연극에 관심을 보여 자신의 성으로 초대한다. 그러나 연출한 공연이 실패로 끝나고, 백작 부인과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진 빌헬름은 괴로워하며 그 성을 떠나게 된다.

43) 이현숙,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있어서 「아름다운 영혼의 고백」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6-7.

제4권

도시로 가던 중 빌헬름은 산적의 기습을 받으나 어느 아름다운 아마존 여인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마음속으로 그녀를 흠모하게 된다.

제5권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듣고 빌헬름은 더욱 연극에 열중하게 되고, <햄릿>이란 공연을 준비한다. 그러나 연극을 하던 중 <도망쳐라! 젊은이, 도망쳐라!>는 메시지를 비밀에 가려진 유령으로부터 듣게 된다. 그는 극단을 그만두고 로타리오의 성으로 가게 되고 귀족 신분의 사람들을 사귀게 된다.

제6권

그곳에서 우연히 펠릭스가 마리안네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빌헬름은 펠릭스를 잘 길러줄만한 테레제에게 청혼을 한다. 그러나 그 소식을 접한 미농은 충격을 받고 쓰러져 죽는다.

제7권

미농의 장례식장에서 한 귀족에게 미농이 하프 타는 노인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된다. 하프 타는 노인은 자신이 사랑한 여인 스페라타가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상심한 나머지 승려가 되고, 그 후에는 미농을 찾기 위해 망랑을 한다. 아우구스틴은 미농이 죽자 결국 자살을 한다.

제8권

이후 빌헬름은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이 나탈리에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청혼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

이상으로 8권으로 이루어진 괴테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 수업시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미농이란 인물은 신비스러우며 감성적이고 이국적인 성격으로 인해 많은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본 논문의 주제이기도 하므로 이어지는 글에서는 미농의 인물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미넵이란 인물의 특성과 예술작품에서의 반향

미넵은 낭만주의의 상징적인 존재이며 대표적인 순수한 영혼이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명과 차별화되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인물이다. 이러한 미넵은 낭만주의의 많은 작곡가들에게 영감이 되었으며 숭고하고 순수한 낭만주의의 정신을 대변하고 있다.

원래 'Minon(미넵)'이란 이름은 “프랑스 귀족 사회에서 동성의 친한 사람에게 부르는 호칭으로 '애인', '귀염둥이', '가장 사랑스러운'의 뜻”을 가진다.⁴⁴⁾ 그러나 괴테는 소설 속에서 미넵을 매우 신비로운 이국적 외모에 검은 피부, 작은 키, 나이를 알 수 없는 아이와 처녀의 중간쯤인 소녀로 묘사했다. 다음은 소설 속에 나오는 빌헬름의 미넵에 대한 묘사이다.

“그는 그녀의 나이를 열두 살 또는 열 세 살 까지로 어림잡았다. 체격이 좋았는데, 다만 팔다리는 앞으로 더욱더 튼튼하게 자라날 것으로 보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팔다리의 발육이 앞으로 억제될 조짐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녀의 신체적 모습에는 균형이 결여되어 있었으나, 무엇인지 사람의 눈을 끄는 데가 있었다. 이마는 비밀에 가득 찬 듯하고 코는 유별나게 아름다웠으며, 입은 나이에 비해 너무 꼭 다문 것처럼 보였고 가끔 입술이 한 쪽으로 썰룩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순박해 보였고 매력이 넘쳐 흘렀다. 갈색이 도는 얼굴빛은 화장 때문에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⁴⁵⁾

이러한 신비로운 모습은 보는 사람의 관심을 끄는 동시에 뭔가 불안하다는 인상을 준다.⁴⁶⁾ 또한 “정확히 확정할 수 없는 미넵”의 이미지이기도 하다.⁴⁷⁾

44) 조두환, 『독일 시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2000), 153.

45) Goethe, Johann Wolfgang von,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1』, 안삼환 번역 (서울: 민음사, 2012), 150.

46) 오순희, “미넵의 죽음 -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나타나는 자연과 젠더질서의 층

그리고 '그' 혹은 '그녀'라고 불리는 잘 구별할 수 없는 양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미농은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소년처럼 옷을 입고 소년처럼 행동하며, 여성적인 외모를 요구받으면 “저는 사내예요, 여자애이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말하며 저항한다.⁴⁸⁾ 괴테는 이러한 미농을 “하나의 ‘성(性)’ 에 소속되지 않는 이미지로 만들어 의도적으로 강화” 하고 있다.⁴⁹⁾ 그래서 더 “그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규정해주는 수식어가 없다는 사실이다.”⁵⁰⁾ 이러한 이미지는 미농을 더 수수께끼 같은 캐릭터로 만들어주고 있다. 또한 미농은 과거의 일과 출생배경이 비밀스런 인물로 만들어놓기도 했다. 출생배경과 과거일을 살펴보면, 미농의 고향은 원래 이탈리아이다. 하지만 어렸을 적 미농이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때 사람들이 미농을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모르는 길로 납치를 했다. 그래서 그 후로 미농은 서커스단에서 줄타기와 곡예를 하고 학대를 받으며 지내게 된다. 그리고 납치로 인한 상처가 미농의 성격과 삶을 바꾸어 놓았다. 미농은 말수가 적으며 아무에게도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얘기하지 않는다. 단지 노래와 시로 조금씩 자신을 표현할 뿐이다. 미농의 출생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렇다.

미농의 할아버지는 아들 셋 외에 딸(스페라타)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웃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 그 딸을 낳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그런데 둘째 아들(아우구스틴, 하프타는노인)은 스페라타를 사랑하게 되고, 이 둘 사이에서 미농이 태어나게 된다. 즉 미농은 남매간의 근친 관계로 세상에 태어난 출생의 비밀을 가졌으며, 할아버지에 의해 부모와 떨어진 미농은 남의 손에서 키워지게 된다. 그러나 후에 유괴범에게 납치되어 고향 이탈리아를 떠나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미농의 아버지 아우구스틴은 납치된 그녀를 찾아 헤맨다. 서커스단에서 곡예를 하며 학대받던 미농은 빌헬름에 의해 구출되고, 그

돌,” 『괴테연구』 27 (2014), 4.

47) 오순희, 위의 글, 2.

48) 위의 글.

49) 위의 글.

50) 위의 글.

후 미농은 빌헬름을 따르고 그녀의 아버지 아우구스틴인 하프 타는 노인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하프 타는 노인이 미농의 아버지라는 것을 끝내 알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미농의 장례식장에서 모든 게 밝혀진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아우구스틴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미농은 빌헬름의 도움으로 서커스단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빌헬름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지만 사실상 그를 사랑한다. 미농과 하프 타는 노인은 부녀관계라는 서로의 관계를 몰랐다. 하지만 두 사람이 부르는 미농의 노래에서는 서로가 부녀관계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미농은 “지상의 삶에서 충족될 수 없는 동경을 숙명으로 타고난 낭만적 영혼의 비극” 이라고 할 수 있다.⁵¹⁾ 또한 “감성의 해방, 무한에 대한 동경과 불안, 질서와 논리에 대한 저항이라는 낭만주의적 이상을 미농은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⁵²⁾ 이러한 미농은 바이런(6th Baron Byron, 1788-1824), 고티에(Theophile Gautier, 1811-1972), 네르발(Gerard de Nerval, 1808-1855), 보들레르(Charles-pierre Baudelaire, 1821-1867) 같은 시인의 작품뿐만 아니라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의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Nur wer die Sehnsucht kennt WoO 134, 1807》, 《그 나라를 아시나오 Kennst du das Land op.75, 1809》,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의, 《Mignon D.321, 1815》, 《Lied der Mignon D.877 No.4, 1826》, 《Lied der Mignon D.877 No.2, 1826》, 《Lied der Mignon D.877 No.3, 1826》, 슈만의 《미농을 위한 레퀴엠 Requiem fur Mignon op.98b, 1849》, 볼프(Hugo Philipp Jacob Wolf, 1860-1903)의 《말하라 하지 마세요 Heiß' mich nicht reden, 1888》,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Nur wer die sehnsucht kennt, 1888》, 《이 모습 그대로 두오 laßt

51) 조성희, “상처 입은 영혼 미농-트라우마 이론의 관점에서 본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괴테연구』 28 (2015), 3에서 재인용.

52) 조성희, 위의 글, 3.

mich scheinen, 1888》, 《그 나라를 아시나요 Kennst du das Land, 1888》,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의 《그 나라를 아시나요 Kennst du das Land S.275, 1842》 등 여러 작곡가들의 음악작품에도 영향을 끼쳤다.⁵³⁾ 그리고 오페라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도 미농이 등장했다.⁵⁴⁾ 이렇게 많은 작품에 미농이 등장하는 이유는 “미농이 문명에 물들지 않은 어린이의 순수함과 유혹적인 여성의 성적 매력을 동시에 지녔을 뿐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잠재적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⁵⁵⁾ 이렇듯 미농이란 인물은 중요하고 많은 작품의 영감을 주는 캐릭터이다. 다음 장에서는 괴테가 이렇게 신비롭게 묘사한 인물인 미농을 슈만이 어떻게 해석하여 작곡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53) 임유영, “미농의 문학적 수용 - 하우프트만의 노벨레 『미농』을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77 (2017), 2.

54) 앙브루아즈 토마(Ambroise Thomas)는 《미농》(1849)이라는 오페라를 창작했고, 한트케 원작/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 <잘못된 움직임 Falsche Bewegung>(1975)에도 미농이 등장한다.

55) 임유영, “미농의 문학적 수용 - 하우프트만의 노벨레 『미농』을 중심으로,” 7.

IV. 슈만의 가곡집 《빌헬름 마이스터》의 구성과 4곡의 미농의 노래 분석

1. 특성과 구성

가곡집 《빌헬름 마이스터》는 1849년 드레스덴 시기에 작곡되었다. 그 해는 괴테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슈만은 괴테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를 배경으로 이 곡을 작곡하였다.

가곡집 《빌헬름 마이스터》는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서 쓰인 십 편의 시 중에서 미농과 하프 타는 노인의 시 여덟 편과 필리네의 시 한 편을 가지고 만든 곡이다. 이 곡에서는 소설 속에 나오는 시의 순서와 다르게 미농과 하프 타는 노인이 번갈아 가면서 부르게 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슈만이 소프라노와 바리톤이 번갈아 가며 노래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⁵⁶⁾ 가곡집에 있는 각 노래의 구성은 <표1>과 같다.

56) 손유진, “슈만의 가곡에 나타난 낭만주의 모티브 연구: 『빌헬름 마이스터 가곡집』 (Lieder und Gesang aus Wilhelm Meister, Op.98a)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38.

<표1> 슈만의 가곡집 《빌헬름 마이스터》에 있는 노래의 구성

노래	소설 속 배열	화자	조성	분위기
1.당신은 그 나라를 아시나요?	3권 1장	미농	g단조	신비스러움
2.하프 타는 노인의 노래	2권 11장	하프타는 노인	Bb장조	밝음
3.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4권 11장	미농	g단조	그리움
4.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2권 13장	하프타는 노인	c단조	슬픔, 괴로움
5.내게 말하라 하지 말고 침묵하게 해줘요	5권 16장	미농	c단조-C장 조	비밀스러움
6.고독에 몸을 바친 자	2권 13장	하프타는 노인	Ab장조	외로움, 고독함
7.슬픔없는 노래	5권 10장	필리네		사랑스러움
8.문마다 가만히 다가가	5권 14장	하프타는 노인	c단조	복잡함
9.나를 이대로 있게 해주소	8권 2장	미농	G장조	그리움, 동경

제1곡 <당신은 그 나라를 아시나요?>(Kennst du das Land?)는 소설 제 3권 1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 시이다. 이 곡은 서커스단으로 납치되어 온 미농이 고향 이탈리아에 대한 동경을 노래하는 것으로, 신비스러운 분위기의 곡이다.

제2곡 <하프 타는 노인의 노래>(Ballade des Harfners)는 소설 제2권 11장에 나오는 시이다. 하프 타는 노인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부르는 노래이다.

제3곡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Nur wer die Sehnsucht kennt)는 소설 제4권 11장에 나오는 시로서 소설 속에서 미농과 하프 타는 노인의 이중창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슈만은 이를 미농의 독창으로 작곡하였다. 빌헬름은 여행길에 도적을 만나게 되는데, 아마존이라는 알 수 없는 여자가 빌헬름을 구해주게 된다. 그 후로 빌헬름은 그녀를 사모하게 되고, 꿈꾸는듯한 그리움에 빠졌다. 이 모습을 본 미농과 하프 타는 노인은 이중창으로 노래를 부른다.

제4곡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Wer nie sein Brod mit Thränen ass)는 소설 2권 13장에 나오는 시이다. 한 여관 꼭대기에서 하프 타는 노인은 자신의 죄책감과 슬픔을 담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때 빌헬름이 이 노래를 듣게 된다.

제5곡 <내게 말하라 하지 말고 침묵하게 해줘요>(Heiss' mich nicht reden, heiss' mich schweigen)는 소설 제5권 16장 마지막에 나오는 시이다. 이 시는 미봉이 납치된 후에 충격을 받고 아무에게도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는 배경이 있다.

제6곡 <고독에 몸을 바친 자>(Wer sich der Einsamkeit ergiebt)는 소설 제2권 13장에 나오는 시로서 하프너가 부르는 노래이다. 하프너의 노래를 들은 후 위안을 받은 빌헬름이 마음속의 답답한 감정이 시원하게 정리되어 감사하다며 인사를 한다. 빌헬름이 노인에게 그의 처지에 맞는 노래 한 곡을 더 부탁한다.

제7곡 <슬픔 없는 노래>(Singet nicht in Trauertönen)는 소설 5권 10장에 나오는 시로서 유일하게 필리네가 부르는 노래이다. 소설 속에서 필리네란 인물은 빌헬름을 좋아해 계속 쫓아다니는 극단의 여배우이며, 밝고 재치가 있으며 교태가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다. 필리네는 빌헬름과 사람들이 공연준비로 회의 하고 있는 중에 필리네와 제를로가 다툼이 붙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분위기가 나빠지자, 필리네가 분위기를 풀기 위해 부르는 노래이다.

제8곡 <문마다 가만히 다가가>(An die Thuren will ich schleichen)는 소설 5권 14장에 나오는 마지막 시의 노래로 하프너의 노래이다. 빌헬름은 정자에 앉아 지난날 하프 타는 노인이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정신 질환으로 집에 불을 지른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구슬픈 노래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노래의 내용은 마치 금방이라도 미칠 것 같은 한 불행한

사람이 자기 위안을 담고 있는 노래이다.

제9곡 <나를 이대로 있게 해주오>(So lasst mich scheinen, bis ich werde)는 소설 8권 2장에 나오는 시이다. 연극에서 그녀는 천사로 분장을 하게 되는데 길다랗고 가벼운 흰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빛 띠를 두르고, 머리에 금빛 왕관을 썼다. 연극이 끝난 후 의상을 벗기려고 하자 미뇽은 그것을 거절하고 옷을 그대로 입은 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이상으로 슈만의 가곡집 《빌헬름 마이스터》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이 중 미뇽의 노래 4곡에 대하여 알아보고 분석하도록 하겠다.

2. 4곡의 미농의 노래 및 분석

1) 제1곡 <당신은 그 나라를 아시나요?>(Kennst du das Land?)

제 1곡 <당신은 그 나라를 아시나요?>는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제3권 1장에 첫 부분에 나오는 시로 괴테가 1782-1783년 사이에 쓴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시는 괴테가 1815년 출판된 그의 시집에 「미농」(Mignon)이라는 제목으로 실었다. 총 21행의 시이며, 3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연이 7행씩 구성되어 있다. 가사의 원문 및 번역은 이렇다.

Kennst du das Land, wo die Zitronen blüh'n,
im dunkeln Laub die Gold orangen glüh'n,
ein sauffer Wind vom baluen Himmel weht,
die Myrthe still und hoch der Lorbeer steht,
kennst du es wohl, kennst du es wohl?
Da hin! da hin möcht'ich mit dir,
o mein Gelibter, ziehn, dahin, dahin mit dir,
o mein Gelibter, ziehn.

Kennst du das Haus? auf Säulen ruht sein Dach,
es glänzt der Saal, es schimmert das Gemach,
und Marmorbilder steh'n und seh'n mich an:
was hat man dir, du armes Kind, ge than?
Kennst du es wohl, kennst du es wohl?
Dahin! dahin möcht'ich mit dir,

o mein Beschützer, zieh'n, dahin, dahin mit dir,
o mein Beschützer, zieh'n.

Kennst du den Berg und seinen Wolkensteg?
das Maulthier sucht im Nebel seinen Weg;
in Höhlen wohnt der Drachen alte Brut,
es stürzt der Fels und über ihn die Fluth.
Kennst du ihn wohl, kennst du ihn wohl?
Dahin, dahin geht unser Weg!
o Vater, lass uns zieh'n, dahin, dahin geht unser Weg,
o Vater, lass uns zieh'n!⁵⁷⁾

당신은 아시나요, 저 레몬꽃 피는 나라?
그늘진 잎 속에서 금빛 오렌지 빛나고
푸른 하늘에선 부드러운 바람 불어오며
myrte는 고요히, 월계수는 드높이 서 있는
그 나라를 아시나요?
그곳으로!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오 내 사랑이여!

당신은 아시나요, 그 집을? 둥근 기둥들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고, 홀은 휘황찬란, 방은 빛나고,
대리석 입상들이 날 바라보면서,
「가엾은 아이야, 무슨 몹쓸 일을 당했느냐?」 고 물어주는곳,

57) Goethe, Johann Wolfgang von,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1』, 221.

그 나라를 아시나요?
그곳으로!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오 내 보호자여!

당신은 아시나요, 그 산, 그 구름다리틀?
노새가 안개 속에서 제 갈길을 찾고 있고
동굴 속에선 해묵은 용들이 살고 있으며
무너져 내리는 바위 위로는 다시
폭포수 쏟아져 내리는 곳,
그곳으로! 그곳으로 우리의 갈길 뻗쳐 있어요,
오 아버지, 우리 그리로 가요!⁵⁸⁾

이 시의 내용은 빌헬름이 미뇽을 서커스단에서 구출해 낸 다음 날 미뇽의 과거를 묻는 빌헬름에게 자신의 기억을 더듬으며 부르는 노래이다. 제1연에서는 이탈리아의 자연을, 제2연에서는 이탈리아의 예술을, 제3연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스위스로 들어오는 산길(이 길은 미뇽이 납치를 당해 넘어온 길)을 표현하고 있다.⁵⁹⁾

a. 분석

3연의 시는 A, A, A' 형태의 유절 형식으로 작곡되었다. 두 A 부분의 가사는 미뇽이 그리워하는 이탈리아의 자연과 예술을 노래한다. A' 부분의 가사는 미뇽이 납치되어왔던 길을 노래하고 있다.

58) Goethe, Johann Wolfgang von, 위의 책, 221.

59) Goethe, Johann Wolfgang von, 위의 책, 222.

이 곡의 조성은 g단조 이며 3/8박이고 총 81마디이다. 빠르기는 느리게이고 “마지막 두 절은 점점 더 많은 표현을 가지고” (Langsam, die beiden letzten Verse mit gesteigertem Ausdruck, ♩=69)라는 연주 지시어가 붙어 있다. 슈만은 시의 3연 구성과 동일하게 곡도 3부분으로 나누어 작곡하였다. 이 곡의 형식 구조는 <표2>와 같다.

<표2>

형식	A	A	A'
마디	1-26	27-52	52-80
조성	gm-BbM-gm-GM-gm	gm-BbM-gm-GM-gm	gm-BbM-gm-GM-g m
템포	Langsam		

7행이 1연으로 되어있는 이 시는 총 3연이다. 이 시의 율격은 규칙적인 약강격이고, 각운⁶⁰⁾을 보면 1행과 2행, 3행과 4행, 5행과 6행이 짝을 이루는 a a b b c c인 쌍각운(Paarreim)으로 되어있다.⁶¹⁾ 또한 모든 시행은 강운인 남성운으로 끝난다. 가사를 제공한 괴테는 각 행을 강한 운으로 끝내면서 미봉의 강렬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슈만은 밝은 이탈리아의 모습을 부드러운 음악으로 작곡했다. 정리하면 <표3>과 같다.

60) 각운(Reim): 운의 규칙은 시행 끝의 마지막 단어, 즉 각운어(Reimwörter)의 마지막 강모음과 그 다음에 계속하여 나타나는 소리들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61) 조설영, “괴테 시에 의한 슈베르트, 슈만, 볼프의 <미봉의 노래> 중 ‘Kennst du das Land...’ 비교 연구 : 시와 음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7.

<표3> 제1곡의 각운

형식	가사	각운	
A	<p>Kennst du das Land, wo die Zitronen <u>blüh'n</u>, im dunkeln Laub die Gold orangen <u>glüh'n</u>, ein safter Wind vom baluen Himmel <u>weht</u>, die Myrthe still und hoch der Lorbeer <u>steht</u>, kennst du es wohl, kennst du es wohl? Dah<u>in</u>! dahin möcht'ich mit dir, o mein Gelibter, ziehn, dahin, dahin mit dir, o mein Gelibter, <u>ziehn</u>.</p>	<p>-blühn -glühn -weht -steht -hin -iehn</p>	<p>a a b b c c</p>
A	<p>Kennst du das Haus? auf Säulen ruht sein <u>Dach</u>, es glänzt der Saal, es schimmert das <u>Gemach</u>, und Marmorbilder steh'n und seh'n mich <u>an</u>: was hat man dir, du armes Kind, ge <u>than</u>? Kennst du es wohl, kennst du es wohl? Dah<u>in</u>! dahin möcht'ich mit dir, o mein Beschützer, zieh'n, dahin, dahin mit dir, o mein Beschützer, <u>zieh'n</u></p>	<p>-Dach -Gemach -an -than -in -iehn</p>	<p>d d e e c c</p>
A'	<p>Kennst du den Berg und seinen <u>Wolkensteg</u>? das Maulthier sucht im Nebel seinen <u>Weg</u>: in Höhlen wohnt der Drachen alte <u>Brut</u>, es stürzt der Fels und über ihn die <u>Fluth</u>. Kennst du ihn wohl, kennst du ihn wohl? Dah<u>in</u>, dahin geht unser Weg! o Vater, lass uns zieh'n, dahin, dahin geht unser Weg, o Vater, lass uns <u>zieh'n</u>!</p>	<p>-steg -Weg -ut -uth -in -iehn</p>	<p>f f g g c c</p>

이 노래는 5마디 전주로 시작하는데 슈만은 5마디 짧은 전주에 감7화음, 불협화음 등 많은 화성과 임시표를 사용하였다. 또한 왼손 베이스가 반음계적으로 순차 하행진행하고 오른손의 넓은 음역은 서로 대조를 이루며 펼쳐졌다가 베이스가 V7, IV, I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롭고 낭만적인 화성의 사용은 슈만 가곡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이다.⁶²⁾ 이 전주는 각 노래 사이의 간주로 나타난다(악보1).

<악보1> 제1곡 <그 나라를 아시나요> 마디1-5

Langsam, die beiden letzten Verse mit gesteigertem Ausdruck. (♩ = 69)

g: i iv₃⁴ V₆ vii₃⁴/iv iv₆ V₇ VIiv V₇ i iv i

A부분(마디1-26)에서는 마디6부터 Bb장조로 바뀌고 이는 미농이 자기가 살던 고향 밝은 이탈리아의 자연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리워하며 그곳에 빌헬름과 같이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Zitronen<레몬꽃>, Gold orangeren<금빛 오렌지>, baluen Himmel<푸른 하늘>, myrte<미르텐>, Lorbeer<월계수>가 이탈리아의 자연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들이다. 여기서 슈만은 똑같은 리듬과 선율을 사용하지 않고 각 단어마다 다른 리듬과 선율을 보이고 있다. 마디7에 Zitronen<레몬꽃>은 blühh<피다>라는 단어를 붙여 반주부에서 16분음표가 펼침화음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꽃이 피는 느낌을 나타내고

62) 윤영주, "R. Schumann의 '4개의 미농의 노래'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30.

있는 듯하다. 마디9에서 Gold orangen<금빛 오렌지>는 glühn<빛을 내다>라는 단어를 붙여 반주부에서 꾸밈음으로 빛을 내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마디10에서 ein safter Wind<부드러운 바람>은 16분음표가 점점 상승함으로써 Wind를 꾸며주고 blauen Himmel<푸른하늘>은 가장 높은음 A음을 사용하여 높고 확 트이는 하늘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반주가 셋잇단음표로 변화하고 왼손에서 증5도화음을 사용하여 곡의 긴장감을 더 높이고 있다. Myrte<미르테>는 피아노를 사용하여 고요하게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Lorbeer<월계수>는 왼손의 4분음표와 8분음표로 나무들이 곧게 서 있는 모습과 오른손의 16분음표 펼침화음으로 나뭇잎을 표현하고 있다. 셋잇단음표는 후렴구가 시작하는 마디17에서 G장조로 전조되고 점차 크레센도와 화성이 많아지며 이 곡의 Dahin!(거기로!)에서 포르테를 사용하며 절정을 이루고 있다. 미봉이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슈만은 많은 화성과 높은 G음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그러나 곧 현실은 미봉이 그곳에 갈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마디23에서 g단조로 돌아오게 되고 V7-I로 끝난다(악보2).

<악보2> 제1곡 <그 나라를 아시나요> 마디 6-27

5 *p*
 Kennst du das Land, wo die Zi - tro - nen blüh'n, im dun - keln Laub die Gold - o - rangen glüh'u, ein sauf - ter.

11 *cresc.*
 Wind vom blan - en Himmel weht, die Myr - the still und

15 *fp* *cresc.*
 hoch der Lor - beer steht, kennst du es wohl, kennst du es

19 *f*
 wohl? Da - hin! da - hin möcht' ich mit dir, o mein Be-

B♭ : °

G :

그리고 슈만은 후렴구를 원시에 조금 더 가사를 붙여 작곡했는데, 미봉이 그 리워하고 동경하는 이탈리아를 빌헬름과 같이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사의 반복으로 더 강조한 것 같다. 이를 정리하면 <표4>와 같다.

<표4> 괴테와 슈만의 후렴구 시 비교

가사	괴테	슈만
1연	Dahin! dahin möcht ich mit dir, o mein Geliebter, ziehn.	Dahin! dahin möcht ich mit dir, o mein Geliebter, ziehn. dahin, dahin mit dir, o mein Geliebter, ziehn.
2연	Dahin! dahin möcht ich mit dir, o mein Beschützer, ziehn.	Dahin! dahin möcht ich mit dir, o mein Beschützer, ziehn. dahin, dahin mit dir, o mein Beschützer, ziehn.
3연	Dahin! dahin Geht unser Weg! o Vater, lass uns ziehn!	Dahin! dahin Geht unser Weg! o Vater, lass uns ziehn! Dahin! dahin Geht unser Weg! o Vater, lass uns ziehn!

두 번째 A부분(마디27-52)은 전주와 똑같은 5마디로 시작하고 조성 변화와 반주부분과 성악부분 멜로디를 첫 번째 A부분과 다 똑같이 작곡하였다. 여기서는 “가없는 아이야, 무슨 몸쓸일을 당했느냐?” 라는 가사를 통해 미봉이 납치되어 왔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A’ 부분(마디53-80)에서는 미봉이 납치되어온 길을 노래하고 있으며, 앞의 두 A부분과 간주가 조성은 같지만 6도 위의 음으로 시작하면서 다른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악보3).

<악보3> 제1곡 <그 나라를 아시나요> 마디 52-56



그러나 가사가 앞에 분위기와 확연히 달라지지만 슈만은 같은 형식으로 곡을 썼다. 여기서 통절형식으로 작곡한 다른 작곡가(슈베르트, 볼프, 베토벤)들과는 달리 슈만은 이 곡을 유절 형식으로 작곡하였다. 이 곡은 어린아이인 ‘미농’이 부르는 리트인데 아리아적인 통절형식과는 맞지 않다는 괴테의 생각을 슈만이 잘 반영한 듯하다.⁶³⁾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Beethoven과 Spohr가 어떻게 그 리트를 그렇게 완전히 잘 못 파악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통절형식으로 작곡했다니 말이지요! 각 연의 같은 곳에 나타나는 동일한 구별표시는 내가 작곡가들에게 단지 하나의 리트를 바란다는 것을 암시하기에 충분했을 터인데 말입니다. 미농은 그 인물적 본질에서 리트를 부를 수 있지 절대로 아리아와 맞지 않습니다.”⁶⁴⁾

그리고 마지막 후주는 I도 음이 아닌 V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채 마치는데, 이는 고향 이탈리아를 향한 미농의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듯하다(악보4).

<악보4> 제1곡 <그 나라를 아시나요> 마디80-81



63) 김미영, “괴테의 리트 미학,” 『음악이론연구』 4 (1999), 10.

64) 위의 글, 10에서 재인용.

2) 제3곡 <그리움을 아는 사람만이>(Nur wer die Sehnsucht kennt)

제3곡 <그리움을 아는 사람만이>(Nur wer die Sehnsucht kennt)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제4권 11장에 나오는 시로서 소설이 완성되기 전 ‘Sehnsucht’ (그리움)이라는 제목으로 1784년 출판되었고,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베토벤, 슈베르트, 슈만, 볼프, 차이코프스키(Pyotr Ilyich Chaikovsky, 1840.5.7~1893.11.6) 등 많은 작곡가들이 이 시를 좋아했으며⁶⁵⁾ 슈베르트, 차이코프스키, 볼프, 베토벤은 이 시를 예술가곡으로 작곡화하였다. 시는 단연시이며, 원문 및 번역은 이렇다.

Nur wer die Sehnsucht kennt,
Weiß, was ich leide!
Allein und abgetrennt
von aller Freude,
seh' ich an's Firmament
nach jener Seite

그리움을 아는 사람만이
나의 이 괴로움 알리라!
혼자, 그리고 모든 즐거움과
담 쌓은 곳에 앉아
저 멀리 창공을 바라본다

Ach! der mich liebt und kennt,
ist in der Weite,
Es schwindet mir,
es brennt mein Eingeweide.

아! 날 사랑하고 알아주는 사람은
먼 곳에 있다!
이 내 눈은 어지럽고
이 내 가슴 타는구나

Nur wer die Sehnsucht kennt,
weiß, was ich leide!

그리움을 아는 사람만이
나의 이 괴로움 알리라!⁶⁶⁾

65) 김미애, 『독일가곡의 이해』 (서울: 삼호출판사, 1998), 25.

66) 위의 책(안삼환 역), 366.

이 시의 배경과 내용은 이렇다. 빌헬름은 극단의 무리와 함께 여행을 가던 중 강도를 만나 부상을 당하게 된다. 이때 빌헬름은 이름 모를 아마존이라는 여인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 후 자기를 구해 준 그 여인을 그리워한다. 빌헬름을 연모하는 미농은 다른 여인을 그리워하는 빌헬름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움을 토로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때 하프 타는 노인이 함께 부르는 이중창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슈만은 이 노래를 미농의 독창으로 작곡하였다. 이 노래에서 미농은 자기를 구해 준 빌헬름에 대한 연모를 나타내며, 자신의 어린 시절 고향인 이탈리아를 그리워하는 복합적인 감정을 담고 있다. 이 시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리움과 상실의 아픔’이다.

a. 곡 분석

이 곡의 조성은 g단조이며 템포는 매우 느리게(Langsam, sehr gehalten)이고 41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박자는 3/4박자이며 조성, 빠르기, 박자, 선율 진행이 제1곡과 비슷하다. 형식은 A, A' 2부 형식으로 나누어져 있다. 10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A는 마디1-17이고, A'는 마디18-41이다. A'는 18마디부터 시작하는데, 슈만이 괴테의 원래 시에다가 A'부분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썼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

<표5> 괴테의 원작 시와 슈만이 수정한 시

괴테의 원래 시	슈만이 바꾼 시
<p>Nur wer die Sehnsucht kennt, weiss was ich leide allein und abgetrennt von aller Freude, seh ich an's Firmament nach jener Seite! Ach! der mich liebt und kennt, ist in der Weite, es schwinder mir, es brennt mein Eingeweide. Nur wer die Sehnsucht kennt, weiss was ich leide.</p>	<p>Nur wer die Sehnsucht kennt, (weiss was ich leide)-생략 allein und abgetrennt von aller Freude, seh ich an's Firmament nach jener Seite! Ach! der mich liebt und kennt, ist in der Weite, (es schwinder mir, es brennt mein Eingeweide.)-생략 Nur wer die Sehnsucht kennt, weiss was ich leide.</p>

슈만은 es schwinder mir, es brennt mein Eingeweide.(이 내 눈은 어지럽고, 이 내 가슴은 불타는구나) 이 절정부분을 제외한 원시 전체를 거의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고 시의 규칙적인 운율에 맞추는 대신 같은 가사에 같은 멜로디와 리듬을 사용하고 있다. 곡의 구성은 <표6>과 같다.

<표6>

형식	A	A'
마디	1-17	18-41
조성	gm-BM-cm-gm	g minor
템포	Langsam	

10행으로 되어있는 이 곡은 단연시이다. 이 시의 율격은 약강격이고, 각운을 보면 십자각운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남성운, 여성운으로 번갈아 나온다. 이를 정리하면 <표7>와 같다.

<표7> 제3곡 각운

형식	가사	각운	
A	Nur wer die Sehnsucht <u>kennt</u> ,	-kennt	a
	weiss was ich <u>leide</u> ,	-leide	b
	allein und abgetrennt von aller <u>Freude</u> ,	-Freude	b
	seh ich an's Firmament nach jener <u>Seite!</u>	-Seite	c
	Ach! der mich liebt und <u>kennt</u> ,	-kennt	a
	ist in der <u>Weite</u> ,	-Weite	c
	es schwinder mir, es brennt mein <u>Eingeweide</u> .	-Eingeweide	b
	Nur wer die Sehnsucht <u>kennt</u> ,	-kennt	a
	weiss was ich <u>leide</u> ,	-leide	b
	Nur wer die Sehnsucht <u>kennt</u> ,	-kennt	a
	allein und abgetrennt von aller <u>Freude</u> ,	-Freude	b
	seh ich an's Firmament nach jener <u>Seite!</u>	-Seite	c
	Ach! der mich liebt und <u>kennt</u> ,	-kennt	a
	ist in der <u>Weite</u> ,	-Weite	c
Nur wer die Sehnsucht <u>kennt</u> ,	-kennt	a	
weiss was ich <u>leide</u> ,	-leide	b	

이 노래는 첫 번째 곡 <당신은 그 나라를 아시나요>와 구성이 똑같고 g단조에서 Bb장조로 조성 변화하는 것도 같다. 또한 곡의 시작 부분에 화성 진행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곡에서 미농이 이탈리아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이 시에서도 담겨 있어서 슈만이 이러한 비슷한 화성과 조성을 사용한 게 아닐까 생각된다. A부분은 마디1에서 마디21까지이며 전주 없이 바로 시작한다. 마디의 첫 박의 4분섬표를 둠으로써 긴장감을 준다. 두 번째 마디의 핵심 시어인 그리움(Sehnsucht)이 높은 음 E5에서 울려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8분음표로 연주되는 반주의 오른손은 점차 커져가는 그리움을 묘사하는 듯 점차 상승한다. 마디6에서는 Bb 장조로 조성이 전조되고 있다. 마디7에서

마디11까지 가사를 보면 Allein und abgetrennt von aller Freude, seh' ich an' s Firmament nach jener Seite! (모든 기쁨과 나 홀로 떨어져/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본다)로 되어있다. 헤미올라⁶⁷⁾로 불리는 노래(마디 7-8, 9-10)선율과 베이스의 반진행은 혼자 있는 미농의 외로움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듯하다. 반주의 오른손에서도 8분음표 펼침화음이던 부분이 셋잇단 음표로 바뀌면서 분위기가 더 고조된다. 여리게 시작한 노래는 점차 크레센도하여 포르테(마디9)까지 갔다가 다시 여리게로 바뀌지만(마디10), 마디12에서 더 빠르게(Schneller)라는 지시어에 따라 점점 빨라진다. 이는 이어지는 가사 es schwinder mir, es brennt mein Eingeweide(이 내 눈은 어지럽고, 이 내 가슴은 불타는구나, 마디16-18)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이 부분의 가사의 표현은 빠르기뿐만 아니라 음정 도약과 셈여림, 화성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마디16의 시어 "brennt(불타다)"가 단6도 도약과 크레센도를 통해 포르테에서 최고음 Ab5로 절정을 이룬다. 여기에 나폴리6 화음까지 사용하여 미농의 괴로운 마음을 더 표현하였다. 또한 마디17에 감7화음을 써서 미농의 아픔과 그리움의 마음을 더 강조하였다(악보5).

67) 두 개로 나누어야 하는 길이를 세 개의 음표로 나눈 리듬

<악보5> 제3곡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마디1-17

Langsam, sehr gehalten. (♩=63.)

Mignon

Nur wer die Seh - sucht kennt, weiss was ich lei - de, al -

Piano

p

g : i vii[♯]₃/iv iv₆ vii[♯]₇/V V

5 *cresc.* *f* *f*

lein und ab - ge - trennt von al - ler Freu - de, seh' ich an's Fir - mament nach

5 *cresc.* *p* *f*

B♭ :

10 *Schmeler*

— je - ner Sei - te! Ach! der mich liebt und kennt, ist in der

10 *p*

14

Wei - te, es schwin - det mir, es brnt mein Ein - ge - wei - de. —

14

화성을 보면 A부분의 첫 부분은 I->감7화음(마디1-2), iv6->감7화음(마디3-4)으로 불안정한 미몽의 마음을 표현했다면, A'부분의 첫 부분은 감7화음->IV6(마디18-19), 감7화음->IV6(마디20-21)으로 바뀌는데, 이 때 중요한 단어들이 Sehnsucht(그리움, 마디19)과 leide(괴롭다, 마디21)가 비화성음인 이탈음으로 해결이 지연되어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마디19, 마디21에서는 이 곡의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Sehnsucht(그리움), leide(괴롭다)에 A부분에서 왼손에 없던 불협화음과 스포르찬도를 붙여 줌으로써 그 중요한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다(악보6).

<악보6> 제3곡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마디18-21

후주에서는 슈만 가곡의 특징이 나오는데, 성악 파트에서 다 표현해주지 못한 부분을 반주 파트에서 새로운 멜로디로 노래를 마무리 해주고 있다. 노래가 맨 처음 가사를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차마 더 표현하지 못하는 미몽의 그리움과 괴로운 마음을 피아노 파트가 후주로 정리하고 있다(악보7).

<악보7> 제3곡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마디37-41

3)제5곡 <내게 말하라 하지 말고 침묵하게 해줘요> (Heiss' mich nicht reden, heiss' mich schweigen)

이 시는 1782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며,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의 초안이었던 『빌헬름의 연극적 사명』 제3권 12장에 실려 있다. 『빌헬름 마이스터 수업시대』의 소설에서는 제 5권 16장에 나온다. 총 3연 12행으로 되어 있으며, 시의 원문 및 번역은 이렇다.

Heiss' mich nicht reden, heiss' mich schweigen!
denn mein Geheimniss ist mir Pflicht!
Ich möchte dir mein ganzes Inn're zeigen,
allein das Schicksal will es nicht.
Heiss' mich nicht reden, heiss' mich schweigen!

Zur rechten Zeit vertreibt der Sonne Lauf die finst're Nacht,
und sie muss sich erbellen:
der harte Fels schliesst seinen Busen auf,
missgönnt der Erde nicht die tief verborg'nen Quellen.
Ein Jeder sucht im Arm des Freundes Ruh,
dort kann die Brust in Klagen sich ergiessen,
allein ein Schwur drückt mir die Lippen zu,
und nur ein Gott vermag sie aufzuschliessen, nur ein Gott!

Heiss' mich nicht reden, heiss' mich schweigen,
ein Schwur drückt mir die Lippen zu,
und nur ein Gott vermag sie aufzuschliessen!

말하라 하지 말고 침묵하게 해줘요,
비밀을 지키는 건 나의 의무니까요!
이 내 속 당신에게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운명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때가 되어 아침 해 떠오르면
어두운 밤은 쫓겨나며 제 정체를 밝히죠.
단단한 바위도 제 가슴 풀어헤쳐
깊이 감춰둔 샘물 대지에 선사하죠.
누구나 임의 품 안에서 안식을 찾고
가슴에 맺힌 한 거기서 풀 수 있어도,

이 내 입술만은 맹세로 굳게 닫혀
신이 아니면 열 수 없어요.⁶⁸⁾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연극단원인 제를로의 누이동생인 아우렐리가 로타리오라는 남자에게 버림을 받는다. 후에 아우렐리가 병들어 죽기 전에 로타리오에게 자기가 죽는다는 편지를 쓴다. 아우렐리는 빌헬름에게 그 편지를 로타리오에게 전해달라고 하고 죽는다. 그리고 그 편지를 빌헬름이 로타리오에게 전해주려 여행을 떠난다는 내용이다. 이 시는 소설 속에서 내용이 연결되어 나오는 게 아니라 미농이 예전에 몇 번 낭송했던 시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다. 시 내용을 보면 미농은 어렸을 때 길을 잃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집에 데려다주지 않고 납치를 하여 이에 큰 충격을 받았다. 미농이 아무에게도 집과 출생을 말하지 않기로 맹세한 상황을 그린 시이다.

68) 위의 책(안삼환 역), 548.

a. 분석

이 곡의 조성은 c단조이며, 박자는 4분의 4박자이다. “자유롭게 열정적으로” (Mit freiem leidenschaftlichen Vortrag)라는 연주 지시어는 곡의 분위기를 잘 나타낸다. 형식은 A-B-coda로 이루어진 통절 형식이다. A부분은 시의 1-4행이며, 빌헬름에게 비밀을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미농의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B부분은 시의 5행-10행이며, 순리대로 흐르는 자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coda는 시의 11-12행, 오직 신만이 자신의 비밀을 말하게 할 수 있다는 미농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곡의 구성은 <표8>와 같다.

<표8>

형식	A	B	coda
마디	1-15	16-53	54-61
조성	cm-AbM-fm-cm	GM-cm-am-AM-am-FM-DbM-cm	CM
빠르기	Langsamer-Schneller-Langsamer-Adagio		

총 15행으로 되어있는 이 시는 단연시이다. 이 시의 율격은 강약격이고, 각 운을 보면 a b a b c d c d 로 십자각운으로 되어있다. 운은 남성운으로 끝난다. 이를 정리하면 <표9>와 같다.

<표9> 제5곡 각운

형식	가사	각운	
A	Heiss' mich nicht reden, heiss' mich <u>schweigen!</u>	-Schweigen	a
	denn mein Geheimniss ist mir <u>Pflicht!</u>	-Pflicht	b
	Ich möchte dir mein ganzes Inn're <u>zeigen</u> ,	-zeigen	a
	allein das Schicksal will es <u>nicht</u> .	-nicht	b
	Heiss' mich nicht reden, heiss' mich <u>schweigen!</u>	-Schweigen	a
	Zur rechten Zeit vertreibt der Sonne Lauf die finst're	-Nacht	b
	<u>Nacht</u> ,		
	und sie muss sich erbellen:		
	der harte Fels schliesst seinen Busen <u>auf</u> ,	-auf	c
	missgönnt der Erde nicht die tief verborg'nen <u>Quellen</u> .	-Quellen	d
	Ein Jeder sucht im Arm des Freundes <u>Ruh</u> ,	-Ruh	c
	dort kann die Brust in Klagen sich <u>ergiessen</u> ,	-ergiessen	d
	allein ein Schwur drückt mir die Lippen <u>zu</u> ,	-zu	c
	und nur ein Gott vermag sie <u>aufzuschliessen</u> , nur ein	-aufzuschli	d
	Gott!	essen	
Heiss' mich nicht reden, heiss' mich <u>schweigen</u> ,			
ein Schwur drückt mir die Lippen <u>zu</u> ,			
und nur ein Gott vermag sie <u>aufzuschliessen!</u>			

A부분은 처음에 2마디 짧은 전주를 가지는데 포르테로 단호하게 박차고 나간다. 오른손 소프라노 라인은 하행, 왼손 베이스 라인은 상행하여 반진행 하고, 잦은 조성 변화를 보인다. 또한 오페라의 아콤파냐토 레치타티보 반주 느낌이 나온다. 이러한 반주는 오페라에서 주인공의 극적인 마음의 동요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슈만은 이러한 전주의 분위기를 통해 미농의 극적이고 복잡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마디3-5의 성악 선율은 포르테와 스포르찬도가 더해져 아무에게도 비밀을 말하지 않겠다는 미농의 굳은 의지가 표현되고 있는 듯하다. 또한 마디2에서 강박에 나와야 할 시어 'Heiss' 가 엇박자에 나오음

로써 ‘말하라’를 강조하고 있다. 마디4에서는 성악 선율 끝부분에서 Ab장조로 조성이 전조된다. 하지만 곧 마디8에서 f단조로 전조되고 빠르기도 더 느리게 (Langsamer)에서 더 빠르게(Schneller)로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들은 미농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마디6, 마디7에서는 <비밀>, <의무>라는 단어에 악센트와 스포르찬도가 되어있는데 이 시의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

마디7-15에서는 피아노 반주 파트의 연속 8분음표 리듬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미농에게 비밀을 말하라고 강요하는 현실의 강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특히 마디10부터는 성악 선율과 피아노 반주 라인이 거의 동등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이중주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고, 반주를 노래와 대등하게 작곡하는 것은 슈만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마디11에는 시어 will(~하게 하다)에 스포르찬도가 붙어 중요한 시어를 강조하고 있는데 미농이 말하고 싶지만 운명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디12, 13은 시의 1, 2행을 한 번 더 반복하여 미농이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한 번 더 나타내고 있다(악보8).

<악보8> 제5곡 <말하라 하지 말고, 침묵하게 해줘요> 마디1-15

Mit freiem leidenschaftlichen Vortrag.

Mignon *sf* *rit.* *Langsamer*
 Heiss' mich nicht re - den, heiss' mich schweigen!

Piano *f* *rit.* *p* *Langsamer*

c: i6 iv i[♯]vii[♯]/V vii[♯]7 i V₃ i6 A₇:

5 denn mein Ge - heimnis ist mir Pflicht! Ich möch-te dir mein ganzes Inn - re - ze - gen,

5 *Schneller.* *Schneller.* *sf* *sf* *sf*

10 allein das Schicksal will es nicht. Heiss' mich nicht re - den, heiss' mich schweigen!

10 *f*

15

15

B부분이 시작하는 마디 16부터는 A 부분에서 빠르게 템포가 진행되다가 더 느리게(Langsam)로 바뀐다. 그리고 C장조로 조성도 바뀌면서 분위기가 달라진다. 가사를 보면 “때가 되어 아침 해 떠오르면/ 어두운 밤은 쫓겨나며 체 정체를 밝히듯/ 단단한 바위도 제 가슴 풀어헤쳐/ 깊이 감춰둔 샘물 대지에 선사하듯/ 누구나 임의 품 안에서 안식을 찾고/ 가슴에 멧힌 한 거기서 풀 수 있어도” 라고 되어있다. 미농의 마음과 달리 때가 되면 비밀을 풀 수 있는 자연을 표현하고 있는데, 반주 파트가 당김음으로 변화함으로써 분위기를 바꿔주고 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밤이 지나가는 모습을 성악 선율과 반주 선율의 상승과 크레센도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마디22 erhellen(밝아지다)에서 스포르찬도가 나오며 그 절정을 이룬다. 그 다음에 나오는 피아노 반주는 다음에 나오는 노래의 분위기를 바꿔주고 있다. 그리고 바로 a 단조로 전조되고 분위기가 가라앉는다. 마디26부터는 다시 노래와 반주가 같이 진행한다. 마디 28부터 또 다시 템포가 변화 하고 a단조에서 A장조로 전조 되고 다시 a단조로 전조된다. 또한 감 7화음, 프렌치 6화음 등 화성을 많이 사용하여 미농의 내적인 불안감을 음악적으로 표현하였다. 마디31부터는 다시 당김음을 사용하여 노래의 절정 부분을 향해 긴장감을 높여주고 있다(악보9).

<악보9> 제5곡 <말하라 하지 말고, 침묵하게 해줘요> 마디 16-36

Langsamer 16 *p*

Zur rech - ten Zeit ver - treibt der Son - ne Lauf die finst're

Langsamer 16 *p*

20 *cresc.* *sf* *p* *cresc.*

Nacht, und sie muss sich er - hel - len; der har - te

cresc. *f* *sf* *p* *sf* *p* *cresc.*

25 *Nach und nach schneller.*

Fels schliesst seinen Bu - sen auf, missgönnt der Er - de nicht die

Nach und nach schneller.

sf

a: $V \frac{9}{iv}$ iv V_7 VI $V \frac{4}{V}$ A: $1 \frac{4}{4}$ IV₆ - 5

29 *f* *p* *cresc.*

tief ver - borg'nen Quellen. Ein Je - der sucht im Arm des Freundes Ruh', dort

29 *f* *sf* *p* *cresc.*

I₆ vii⁶/V V a: VI $V \frac{3}{iv}$ iv₆ V Fr.6

마디37부터 마디46마디까지는 베이스가 순차 하행진행을 한다. 가사를 보면 “이 내 입술만은 맹세로 굳게 닫혀/ 신이 아니면 열 수 없어요!” 라고 되어 있다. 비밀을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미봉의 체념을 표현하고 있다. 마디47-48, coda 부분은 피테의 시에 없는 부분을 슈만이 한 번 더 썼다. 마디45, 46 피아노 반주로 여운을 남기고 마디47에서 피아노로 ‘오직 나의 신에게만’ 이라고 얘기하고 조용히 끝난 듯 싶었다. 그러나 바로 반주 파트가 포르테와 스포르찬도로 강하게 외침을 하고 54마디에서 급작스럽게 아다지오와 피아노로 변한다. 그리고 한 번 더 피아노로 고요하게 “이 내 입술만은 맹세로 굳게 닫혀/ 신이 아니면 열 수 없어요!” 이 가사를 반복하는데 화성을 보면 끝나면서도 끝날 것 같지 않는 화성과 조성을 쓴다. 마디52에서 보면 V_7 다음에 I 로 끝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디54에서 $vii^\circ \frac{4}{3}/iv$ 를 사용함으로써 여운을 남기고 있다. 그다음에 마디56에서 V_7 이 또 나오는데 마디57에서 $vii^\circ 7$ 를 쓰고 피가르디 종지를 사용함으로써 마지막에 C 장조로 끝나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슈만의 후기 가곡 특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고 오페라 레치타티보 같은 느낌을 받는 듯하다. 또한 이 곡은 c 단조에서 시작하여 C 장조로 끝나는데, 이러한 “단조-장조 조성관계는 투쟁-승리를 상징하는 구조로서 낭만주의 시대에 자주 사용되었던 조성적인 특색”이다⁶⁹⁾(악보10).

69) 손유진. “슈만의 가곡에 나타난 낭만주의 모티브 연구: 『빌헬름 마이스터 가곡집』 (Lieder und Gesang aus Wilhelm Meister, Op.98a)을 중심으로, 개인용

<악보10> 제5곡 <말하라 하지 말고, 침묵하게 해줘요> 마디37-61

37 *sf*
 al - lein ein Schwur drückt mir die Lip - pen zu,

41 *dim.*
 und nur ein Gott ver - mag sie auf - zu - schlie - ssen,

41 *dim.*

45

45

47 *p*
 nur ein Gott!

C : N6 vii⁴₂ V7

54 *Adagio*
 Heiss' mich nicht re - den, heiss' mich schwei - gen, ein Schwur drückt mir die

54 *Adagio*

c : vii⁴₃/V iv6 - 8 V7/iv iv⁶₄ vii⁵₇

58 *rit.*
 Lippen zu, und nur ein Gott vermag sie auf - zu - schliessen!

58 *rit.*

I₃ \flat V⁴₃ I₃ \flat V⁴₃ I₃ (pic.)

4) 제9곡<이 모습 이대로 두오>(So lasst mich scheinen, bis ich werde)

이 시는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제8권 2장에 나오는 시이며 슈만의 가곡집 《빌헬름 마이스터》에서 미농에 관한 노래 중 마지막 곡이다. 독특하게 이 시만 『빌헬름 마이스터의 연극적 사명』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괴테가 『수업시대』의 제8권을 쓰면서 지은 것으로 추측된다.⁷⁰⁾ 시의 원문 및 번역은 이렇다.

So lasst mich scheinen,
bis ich werde,
zieht mir das weisse Kleid nicht aus!
Ich eile von der schönen Erde
Hinab in jenes feste Haus.
Dort ruh' ich eine kleine Stille,
dann öffnet sich der frische Blick,
ich lasse dann die reine Hülle,
den Gürtel und den Kranz zurück.

Und jene himmlischen Gestalten,
sie fragen nicht nach Mann und Weib,
Und keine Kleider, keine Falten
Umgeben den verklärten Leib.

Zwar lebt' ich oh ne Sorg' und Mühe,
doch fühlt' ich tiefen
Schmerz genug:

70) Goethe, Johann Wolfgang von,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2』 안삼환 번역, 275.

Vor Kummer altert' ich zu frühe,
macht mich auf ewig wieder jung!

참다운 존재로 될 때까지는
그냥 허깨비로 있게 해주세요
이 흰옷을 벗기지 말아주세요!
이제 곧 이 아름다운 지상을 떠나
저 견고한 무덤으로 내려갈 몸이니깐요.
그 곳에서 잠시 쉬고 나면
새로운 눈이 뜨일 거예요.
그럼 저는 이 깨끗한 흰옷도, 띠와 왕관도
다 두고 떠날 거예요

저 천상의 존재들은 남녀를 묻지 않고
정화된 육체에는
웃이고 주름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요.

걱정과 수고라곤 모르고 살아왔지만
쓰라린 고통만은 참 많이도 맛보았고

가슴앓이 때문에 너무 일찍 시들었어요.
저를 영원히 다시 젊게 해주세요!⁷¹⁾

71) Goethe, Johann Wolfgang von, 위의 책, 276.

이 시는 미봉의 모습을 다른 시들보다 더 잘 나타내고 있으며, 소설의 제 8권 2장에 수록된 시이다. 시의 내용에서 미봉은 연극을 위해 천사로 분장을 하였는데, 연극이 끝난 후 극단 사람들이 미봉의 옷을 벗기려 하자, 이를 거절하며 이 노래를 부른다. 이러한 미봉은 다른 사람의 연인이 된 빌헬름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죽음을 예감하며 연극에서처럼 천사가 되기를 바란다.

a. 분석

이 곡의 조성은 G장조이고 박자는 4분의 3박자이며, 빠르기는 “느리게 (Langsam)” 이다. 형식은 A, B로 된 통절 가곡 형식이다. 이 곡에서의 음악은 일정한 패턴이나 반복됨이 없이 가사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화성 또한 낭만 후기의 화성이 나타나는 등 당대의 가곡 양식에 비해 진보된 형식과 화성이 사용되었다. 곡의 구성은 <표10>과 같다.

<표10>

형식	A	B
마디	1-30	31-54
조성	GM-am-gm-GM-am-CM-GM	GM-cm-GM
빠르기	Langsam	

이 시는 9행이 1연으로 되어있으며, 시의 율격은 약강격이고, 각운을 보면 십자각운으로 되어있다. 모든 운은 남성운으로 끝난다. 이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11> 제9곡 각운

형식	가사	각운	
A	So lasst mich scheinen, bis ich <u>werde</u> ,	-werde	a
	zieht mir das weisse Kleid nicht <u>aus</u> !	-aus	b
	Ich eile von der <u>schönen Erde</u>	-Erde	a
	Hinab in jenes feste <u>Haus</u> .	-Haus	b
	Dort ruh' ich eine kleine <u>Stille</u> ,	-Stille	a'
	dann öffnet sich der frische <u>Blick</u> ,	-Blick	c
B	ich lasse dann die reine <u>Hülle</u> ,	-Hülle	a'
	den Gürtel und den Kranz <u>zurück</u> .	-zurück	c
	Und jene himmlischen <u>Gestalten</u> ,	-Gestalten	d
	sie fragen nicht nach Mann und <u>Weib</u> ,	-Weib	e
	Und keine Kleider, keine <u>Falten</u>	-Falten	d
	Umgeben den verklärten <u>Leib</u> .	-Leib	e
	Zwar lebt' ich oh ne Sorg' und <u>Mühe</u> ,	-Mühe	f
	doch fühlt' ich tiefen Schmerz <u>genug</u> ;	-genug	g
	Vor Kummer altert' ich zu <u>frühe</u> ,	-frühe	f
	macht mich auf ewig wieder <u>jung</u> !	-jung	g

이 곡은 ‘죽음’ 을 노래하지만 평안한 느낌을 주는 G장조 곡이다. “복잡하고 반음계적 화성을 많이 사용한 다른 미논의 노래와는 달리 이 곡은 단순하고 온전한 화성을 사용하였다.” 72) 이는 슈만이 죽음을 ‘평안함’ , ‘구원’ 으로 인식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73) 노래는 2마디 간주로 시작하고 4분쉼표를 강박에다가 사용하였는데 긴장감보다는 안정감을 나타내고 있다. 마디3부터 시

72) 손유진, “슈만의 가곡에 나타난 낭만주의 모티브 연구: 『빌헬름 마이스터 가곡집』 (Lieder und Gesang aus Wilhelm Meister, Op.98a)을 중심으로,” 91.

73) 위의 글, 91에서 재인용.

작하는 노래의 가사는 ‘나를 이대로 있게 해주오,’ 이며 가사에 맞게 복잡한 화성이나 전조 없이 진행되고 있다. 마디6, 7의 가사는 ‘내 옷을 벗기지 말아 주세요!’ 이다. 8분섬표 사용과 8분음표의 반음계적 상승, 점음표로 나타내고 있고 시어 ‘하지마세요(nicht)’ 에 스포르찬도를 사용하여 미농의 간절함을 잘 나타내고 있다. 마디8부터는 반주가 계속 셋잇단음표를 연주하고 화성은 I-V-I로 안정감있게 진행된다. 그러다가 마디12-17에서 ‘Dort ruh ich eine kleine Stille, Dann offnet sich der frische Blick (그 곳에서 잠시 쉬고 나면 내 눈이 열릴거예요), ich lasse dann die reine Hulle(왕관과 떠는 다 두고 떠날거예요) 라고 가사가 나오는데, 시어 Dort(거기서)에서 g단조로 전조 되고 당김음이 지속되는 셋잇단음표 사용으로 곡의 긴장감을 높이면서, 미농의 두려움과 고통을 나타내고 있다. 마디15 dann(그때), 17에서 lasse (두고가다) 단어에 포르테를 사용하고 있다. 마디18에서는 다시 G장조로 전조 되며 V-I 완전한 화성이 나온다. 마디29에서는 C장조로 전조 되고 마디 32, 33 간주가 나오고 앞에 진행과 유사하게 간다(악보11).

<악보11> 제9곡 <나를 이대로 있게 해주오> 마디1-35

Langsam. (♩=76)

Mignon

Piano

p

So lasst mich schei - nen, bis ich wer - de,

pp

sf

6 zieht mir das weiße Kleid nicht aus! Ich ei - le von der schö - nen

p

sf

G :

10 Er - de hin - ab in je - nes fe - ste Haus. Dort ruh' ich ei - ne kleine Stille

pp

p

pp

g :

15 dann öffnet sich der frische Blick, ich las - se dann die rei - ne Hül - le, den

f

f

f

cresc.

f

p

G : V₂⁴ 16

20

Güt - tel und den Kranz zurück. Und je - ne himm - lischen Ge - stal - ten, sie

fp *fp*

24

fra - gen nicht nach Mann und Weib, und kei - ne Kleider, kei - ne Fallen um -

3

28

ge - ben den ver - klär - ten Leib.

28

f

C :

32

Zwar lebt' ich oh - ne Sorg' und

32

p

마디47부터는 앞부분에서 진행하던 느린 템포와 다르게 더 빠르게(Schneller)로 진행되며 노래의 마무리를 피아노 후주가 함으로써 노래는 끝난다 (악보12).

<악보12> 제9곡 <나를 이대로 있게 해주오> 마디 47-54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starts at measure 47 and ends at measure 50. The second system starts at measure 51 and ends at measure 54. The vocal line is in G major and 4/4 time. The piano accompaniment is in G major and 4/4 time. The tempo is marked 'Schneller' starting at measure 47. The piano part includes a postlude at the end of the piece.

이상으로 슈만의 《빌헬름 마이스터》 4개의 미농의 노래를 알아보았다. 이 4곡의 노래 시적 의미와 음악적 작법을 <표12>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표12> 4곡의 노래 시적 의미와 음악적 기법

노래 제목	시적 의미	음악적 기법	조성
Kennst du das Land	미농의 고향 이탈리아의 자연과 예술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 납치되었던 길에 대한 기억.	유절형식 감7화음, 불협화음, 임시표,	g minor
Nur wer die Sehnsucht kennt	빌헬름에 대한 그리움	감7화음, 불협화음, 나폴리6화음, 이탈리아, 긴 후주	g minor
Heiss' mich nicht reden, heiss' mich schweigen	비밀을 간직한 미농의 내면적인 고통	아리아프의 가곡 통절형식, 템포의 급변화 짙은 조성 변화 반음계적 기법 복잡한 화성	c minor
So lasst mich scheinen, bis ich werde	구원의 갈망과 죽음에의 동경	단순하고 온전한 화성 밝은 G장조	G Major

V. 결론

슈만은 드레스덴 시기인 1849년, 괴테의 작품 『빌헬름 마이스터 수업시대』에서 영감을 받아 《빌헬름 마이스터 가곡집》(Lieder und Gesänge aus 'Wilhelm meister' op.98a)을 작곡하였다. 이 곡은 총 9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중 4곡은 하프타는 노인이 부르는 노래, 4곡은 미농의 노래, 1곡은 필리네의 노래로 되어있다.

본 논문은 4개의 <미농의 노래>를 중심으로 슈만이 '미농'이란 인물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지, 또한 후기 가곡에서 미농을 어떻게 음악적으로 표현했는지에 대해 분석,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슈만의 후기작품 세계에 대하여 고찰하고, 후기 가곡 양식을 살펴본 다음 이 곡의 원작 괴테의 작품과 배경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미농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이며, 왜 낭만주의의 많은 영감이 되었는지 자세히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4개의 <미농의 노래>를 슈만이 각각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슈만이 곡을 지은 이 시기에는 혁명으로 인해 불안정하고 혼잡스러운 시대였다. 슈만은 시적 모티브인 '어린이 모티브'가 내재된 가사로 곡을 많이 작곡하였는데, 어린이를 통해 순수한 세계를 동경하고자 하였다. 그 중에 미농이란 인물은 슈만뿐만 아니라 낭만주의에 많은 작곡가들에게 영감이 되었다. 숭고하고 순수한 낭만주의의 정신을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낭만주의 음악은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 무한한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이었으며, 음악 예술에서 숭고함과 순수함 등은 어린이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그리하여 어둡고 차가운 세상에 맑고 순수한 미농이란 인물을 통해 순수한 세계를 동경하는 슈만의 모습을 담고 있다.

둘째, 슈만의 후기 가곡은 초기 가곡과 달리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오페라적

인 요소도 많으며, 복잡한 화성, 잦은 조성변화, 불협화음등 낭만주의 후기 양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래서 미농의 복잡하고 어두운 내면을 음악적으로 더 잘 표현하고 있다.

첫 번째 곡 <그 나라를 아시나요>에서는 이탈리아의 자연, 예술 그리고 미농이 납치되어온 길을 나타내고 있다. 행복한 시공간에 대한 기억과 불행한 기억까지 내포하는 이 곡을 슈만은 유절 형식으로 작곡했는데, 어린아이인 순수한 미농이 부르는 곡이라서 통절형식의 아리아적인 느낌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느낌을 원하는 이 시의 작가인 괴테의 의견을 잘 반영하였다. 그리고 슈만은 장조 조성, 16분음표, 꾸밈음표, 증화음, 셋잇단음표 등으로 이탈리아의 모습과 미농이 그리워하는 고향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빌헬름을 지칭하는 내사랑, 보호자, 아버지에는 따뜻한 화음 나폴리6를 사용하여 미농의 애정을 나타내주고 있다.

두 번째 곡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에서는 미농의 빌헬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 곡은 첫 번째 곡과 비슷한 조성인 g minor, 화성 등을 사용하여 이탈리아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비슷하다. 또한 나폴리6화음, 비화성음인 이탈음, 불협화음, 감7화음 등을 통해 미농의 불안하고 고통스런 마음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긴 후주로 가사에서 나타내지 못한 미농의 마음을 정리해주고 있다.

세 번째 곡 <말하라 하지 말고 침묵하게 해줘요!>에서는 비밀을 말할 수 없는 미농의 내면의 고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 슈만은 처음부터 포르테의 강한 표현과, 오페라의 아콤폰냐토 레치타티보 반주 기법을 쓰고, 중요한 단어들에 스포르찬도, 악센트 사용을 함으로 미농의 강한 의지를 표현해주고 있다. 또한 잦은 전조, 화성 변화, 급작스런 템포와 셈여림의 변화 등으로 미농의 복잡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네 번째 곡 <나를 이대로 있게 해주오>에서는 죽음만이 구원이고 안식처라

는 미농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다른 곡들과는 달리 밝은 G장조이며, 복잡한 화성보다는 온순하고 완전한 화성을 사용하여 안정감을 표현해주고 있다. 그리고 가사에 밀착하여 음악이 움직이고 있다.

정리하자면 미농은 납치되어온 어두운 세상에서 그림고 밝은 고향 이탈리아를 동경하고 그리워했으며, 슈만은 혼잡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어린이 모티브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낭만주의의 숭고하고 순수한 세상을 이 음악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상의 분석연구를 통해 슈만은 음악에 자신이 염원하는 바를 담아 나타내고자했으며, 미농이란 인물을 세세하게 음악으로 표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작품을 연주하는 성악가와 피아니스트는 미농의 인물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섬세하게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슈만이 의도하는 바를 잘 찾아 수준 높은 연주를 해주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단행본 및 번역서

- 괴테, 요한 볼프강.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I』. 안삼환 역. 민음사, 1996.
괴테, 요한 볼프강.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II』. 안삼환 역. 민음사, 1996.
김미애. 『독일가곡의 이해』. 서울: 삼호출판사, 1998.
조두환. 『독일 시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2000.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두길서양음악사2』. 서울: 나남, 2006.
Kimball, Carol. 『Song 하권』. 채은희 번역, 서울: 형설, 2003.

2. 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

- 곽은주. “괴테의 시 ‘Kennst du das Land’ 를 가사로 하는 19세기 독일 예술가곡의 분석 연구 : 슈베르트, 슈만, 볼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 강나영. “볼프의 가곡 '미농의 노래' 분석. 연구 : 괴테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중.”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강여정. “괴테의 서정시 ‘미농의 노래’ 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김미영. “가곡에서 예술가곡으로.” 『낭만음악』 9 (1996).
- _____. “전통의 고수와 새로운 창조적 요구의 통합양식 - 브람스의 리트작곡을 중심으로.” 『연세음악연구』 5 (1997).
- _____. “괴테의 리트 미학.” 『음악이론연구』 4 (1999).
- _____. “새로운 시적 시대의 추구: 슈만의 음악관.” 『음악이론연구』 11 (2006).
- 김민경. “슈베르트, 슈만, 볼프의 가곡 「미농의 노래」 비교분석연구: ‘Heiß mich

- nicht reden'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김보경. “Hugo Wolf의 'Goethe 가곡집'에 관한 연구 : 소설 'Wilhelm Meister'를 중심으로 한 4곡을 가지고.”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김에스더. “괴테의 시 'Kennst du das Land'에 곡을 붙인 -슈베르트, 슈만, 볼프 가곡 비교 ·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김예령. “Hugo Wolf의 미농(Mignon)에 관한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김은하. “슈베르트 가곡-괴테의 시 『미농의 노래』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김지영. “Hugo Wolf의 「미농의 노래 I. II. III」의 분석 ·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김지혜. “R. 슈만의 연가곡 <리더크라이스>(Liederkreis, Op.24)에 대한 연구 : 시와 음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김진아. “F. Schubert 미농의 노래에 대한 연구 : 다른 작곡가들의 미농의 노래를 통한 이해와 비교 및 분석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김한나. “Hugo Wolf의 `미농의 노래`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김혜정. “볼프(Hugo Wolf) 가곡에 대한 연구 : 괴테(J.W. Goethe)의 시 "미농(Mignon)"을 중심으로 .”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김희열. “독일 가곡과 슈만의 문학적 음악세계.” 『독일문학』 109 (2009).
- 목문경. “H. Wolf의 「미농의 노래」 연구분석.”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 민진선. “Robert Schumann 예술가곡의 음악적 표현 연구 : 『미농의 노래』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 박선미. “J. W. 괴테의 『미농의 노래』에 대한 R. 슈만과 H. 볼프의 가곡 비교 분석.”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박선애. “괴테 시 『Kennst du das Land』에 붙인 슈베르트, 슈만, 볼프의 가곡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박은정. “하이퍼미터에 근거한 슈만의 가곡 Op. 90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 박은진. “괴테의 시에 의한 F. 슈베르트의 4개의 「미농의 노래」 분석·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박인선. “19세기 예술가곡의 시와 음악적 표현 연구 : F. Schubert, R. Schumann, H. Wolf의 <미농의 노래>중 「Kennst du das Land, wo die Zitronen bluhn」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박현정. “슈베르트(Franz Schubert)가곡에 대한 연구 : 괴테(J.W. Goethe)의 시 ‘미농(Mignon)’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서나은. “Hugo Wolf의 가곡 「미농의 노래」에 관한 연구 : <괴테의 시에 의한>.”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성이진. “슈베르트와 슈만의 「미농의 노래」 비교 연구 및 연주법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손유진. “슈만의 가곡에 나타난 낭만주의 모티브 연구: 『빌헬름 마이스터 가곡집』 (Lieder und Gesang aus Wilhelm Meister, Op.98a)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 송경하. “슈베르트, 슈만, 볼프가곡반주연구 : 괴테 '미농의 노래'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신승지. “F. Schubert의 「미농의 노래」 D-321, D-877 분석 고찰.” 강릉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신지예. “R.슈만의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3개의 로망스》 (Drei Romanzen fur Oboe und Klavier, Op.94)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오순희. “미농의 죽음 -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나타나는 자연과 젠더질서의 충돌.” 『괴테연구』 27 (2014).
- 오주현. “Goethe의 「Wilhelm Meister Lehrjahre」와 Schumann의 「4 Mignon's Songs from Goethe's Wilhelm Meister」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우혜언. “피아노 음악에서 나타난 유년(Childhood) 모티브 연구; 슈만의 《어린이 정경》을 중심으로.” 『음악이론연구』 17 (2011).
- _____. “20세기 후반 피아노 음악에서 나타난 “유년” (Kindheit) 모티브에 대한 미학적 논의 - 헬무트 락헨만의 《어린이 유희》를 중심으로.” 『서양음악학』 31 (2013).
- 윤상희. “H.Wolf의 Mignon I, II, III과 Kennst du das Land에 나타난 시와 음악의 관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윤영주. “R. Schumann의 '4개의 미농의 노래'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이루다. “괴테의 시 Kennst du das Land에 의한 가곡 연구 : F. Schubert, R. Schumann, H. Wolf 비교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 이은선. “미농의 노래 연구 : 슈베르트 슈만 볼프의 가곡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현숙.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있어서 「아름다운 영혼의 고백」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 임유영. “미농의 문학적 수용 - 하우프트만의 노벨레 『미농』을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77 (2017).
- 장혜림. “괴테의 시 '그리움을 아는 자 만이'에 관한 슈베르트, 슈만, 볼프의 가곡 연구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 정복주. “괴테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중 미농의 시를 가사로 한 슈베르트, 슈만, 볼프 가곡.” 『음악연구』 19 (1999).
- 조설영. “괴테 시에 의한 슈베르트, 슈만, 볼프의 <미농의 노래> 중 ‘Kennst du das Land...’ 비교 연구 : 시와 음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조성희. “상처 입은 영혼 미농-트라우마 이론의 관점에서 본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괴테연구』 28 (2015).
- 표지은. “슈베르트 「미농의 노래」의 객관적 연주를 위한 분석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ABSTRACT

The study of Robert Schumann's 「Lieder und Gesänge aus 'Wilhelm meister' 」 op.98a

Lee, HaNa
Department of Accompanying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is a study for the "Four Mignon Songs" by Robert Schumann (1810–1856) in the song "Wilhelm meister, op.98a". Schumann composes an artistic lyric with poems from many composers, and he wrote a song with the name "Mignon" from Goethe's work "Wilhelm Meisters Lehrjahre" in 1849.

This was the time of the Dresden revolution, a very crowded and anxious society. Schumann fancied a pure world in this, especially during this period, he made a song with a child motif, and through a pure and pure childhood mignon. Schumann showed his world of admiration.

In this paper, I first examine Schumann 's works after the Dresden

period and analyzed the background and plot of the work in the novel "Wilhelm Meister's class" and analyzed the character 'Mignon' in it. And I studied the composition and composition of how the musical composition of the "Wilhelm meister" was composed, and analyzed and studied four mignon songs.

As a result of his research, Schumann expressed the mignon through the piano with a rich technique of harmony and new technique, which was influenced by the new German musical instrument and could not be expressed in the form and language of later romanticism. In addition, it uses a dramatic melody rather than a lyrical melody instead of a dissonance, a frequent precursor, a free change of Mars, a 7th harmonic, a non-melodic tone, an opera aria element, a French chord, a Napoli sixth chord, One of the features of the long-lasting, etc. Mignon's dark and complex heart and showed a psychological. And he composed the music closely according to the lyrics. Through these musical techniques, he expressed the mignon in a musical way.